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일 1피트가 넘는 폭설이 보스톤 지역에 내렸다. 폭설에 도로가 눈으로 뒤덮혀 차량 통행이 적은 커먼웰스 애비뉴 도로에서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백년만의 흑한에 이어 올 겨울 첫 대형 폭설

보스톤 7일 연속 낮 최고기온 20도 이하
시즌 첫 블리자드 폭설, 최대 18인치까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백 년만의 흑한이 보스톤 지역을 덮쳤다. 보스톤의 한 낮 최고 기온이 화씨 20도를 넘지 않는 추위가 2018년 1월 2일까지 연 7일째 계속됐다. 흑한이 잠시 쉬는 동안 2018년 1월 4일엔 올 겨울 시즌 첫 대형

블리자드 폭설이 보스톤 지역을 강타했다. 현대적인 기온측정이 시작된 이래 낮 기온이 7일 연속 20도를 넘지 않았던 것은 지난 1918년 1월 4일이었다. 정확히 100년만에 찾아 든 흑한이다. 이 와중에 뉴햄프셔 워싱턴 마운틴 관측소는

사상 최저 기온인 화씨 -34도를 기록했다. 끓인 물을 주전자에 담아 부으면 그대로 눈발이 되어 휘날리는 온도가. 관측소는 실제로 이 장면을 촬영해 보여주기가 했다.

보스톤의 기상학자 데이비드 엡스틴 씨는 가장 추운 최저 온도로만 기록적인 낮은 온도를 표현하는 것은 얼마나 추웠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월 1일과 1월 2일은 사상 가장 낮은 최 >>3면으로 계속

2018 무술년 새해부터 바뀌는 것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년 새해에는 새로운 것들이 시작된다. 2018년에도 매사추세츠의 법규가 달라진다. 특히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들의 변화는 반드시 챙겨야 삶이 풍족해진다. 변경사항들을 분야별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건강보험 할증료(EMAC Supplement)

2018년부터 1월 1일부터 매사추세츠 6인 이상 직원 사업장은 건강보험 할증료를 예상해야 한다. 세금 원천징수를 페이롤 직원이 파트타임인 경우에도 직원 수에 포함된다. 이 직원 중 매스헬스나 커넥터 정부보조 의료보험을 가입한 직원이 있으면 1인당 최대 \$75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들은 직원 수를 줄이거나 페이롤 대신 계약직 직원을 고용하려는 시도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12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 출발 비수기 최저가

인천행 항공권 \$889.00

미처부 3대캐년 패키지 \$470~

1인 요금 12월 1일 사용기일 / 4박5일 / LA 소인 / 정항공 포함

IACE TRAVEL

웹사이트: www.iace-korea.com
이메일: info@iace-korea.com
영업시간: Mon-Fri 12pm-9pm EST

1.617.424.8956
1.866.619.4223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T-BO PLAY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신년맞이 이벤트
1월까지 한달 무료

KBS, MBC, SBS, EBS, tvN, XBS, OCN, Olive, OCN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ileen Park
(아일린 박)
REALTOR®

Tel: 617.935.3241
WWW.BOSTONPARKREALTY.COM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1274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직원 6인 이상 업체, 건강보험벌금 1인 최대 \$750

6-50명 직원보유 사업체, 비영리단체 등 대상 한 업주 "가슴에 돌이 얹히는 느낌, 사업 힘들다" 건강보험 비용 증가 주정부 재정적자 보충코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올해 1월 2일부터 세금 원천징수를 하는 직원이 6인 이상(파트타임 포함)인 업체는 직원 1인당 최대 \$750의 건강보험벌금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다. 개인 사업체인건 또는 교회, 성당 등 비영리단체의 여부와 상관없이 6인 이상 사업체의 직원이 매스헬스 또는 헬스커넥터 정부보조의료보험을 이용하는 경우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모든 사업체는 세금 보고하는 페이롤(payroll) 직원 1인당 사업주의료보조기금(EMAC)도 현행 \$51에서 \$77로 인상된다. 이법을 집행 하는 곳은 매사추세츠 실업보조부(DAU)로 실업보험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매사추세츠 주정부와 의회는 2017년 8월 매스헬스(메디케이드) 비용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자를 벌충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최종 통과 시켰고 베이커 주지사도 서명했다. 법안의 시행일자는 올해 1월 1일부터다. 이 법안은 2018, 2019년 한시적이지만 한인 자영업자, 소규모 사

업자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다.

한인 사업주들과 교회 및 비영리 단체 관계자들 일부는 보스톤코리아의 보도(12월 1일짜리 <보스톤짜리시토크>, 10월 27일자 3편 보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몰라 당혹해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보스톤에서 식당을 운영중인 한 업주는 "보스톤에서 사업하기가 정말 어렵다. 가슴에 돌이 얹히는 느낌이다" 고 밝혔다.

이 업주는 "페이롤을 집행하지니 벌금이 문제이고, 만약 페이롤을 집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면 이 금액이 고스란히 업주의 소득으로 남는다. 양날의 칼이다" 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주류업자들의 침묵도 업주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번 법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한인업주들은 해당 회계사와 상의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사추세츠 실업보조부(DAU)는 주민 공청회를 거쳐 현재는 이법 시행규칙 최종안을 발표했다.



DAU는 이번 건강관련 사업체 벌금을 EMAC 할증금(EMAC Supplement)이라 명칭하고 있다. 최종안에 따르면 각 분기별로 사업체의 총 종업원수를 3으로 나눠 6이 넘는 경우 6인 이상 사업체로 결정하게 된다. 이 직원 중 매스헬스 또는 커넥터 정부보조 의료보험을 56일 이상 가입한 경우 할증금을 부담하게 된다. DAU는 분기별로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사업주들은 이를 10일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미선 회계사는 "6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한인업주들이 문의해 오는 경우가 지금껏 없었다" 며 "많은 한인 업주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 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직원이 5-6명인 경우 대부분의 업주는 직원을 줄이는 선택

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 이라며 고용감소 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MA 주정부와 의회가 이처럼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EMAC 할증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을 지급하지 않아도 벌금을 받지 않는 50인 이하 사업체들이 직장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대신 각 개인별로 커넥터케어 등을 선택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업체의 부담도 낮아지고 개인의 부담도 낮아지게 된다.

결국 이 부담은 건강보험료를 보조하는 정부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매사추세츠의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2011년 이후 무려 45만명이 줄었고 같은 기간 매스헬스 가입자 수는 무려 50만명이 늘었다.

hsb@bostonkorea.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1월 4일에는 2017-18 겨울 시즌 최초 대형 블리자드 폭풍우가 보스턴을 덮쳐 매사추세츠 거의 전지역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다

북극 추위에 상어도 얼어죽어

케이프코드 해변 4번째 동사한 상어 발견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백년만에 찾아온 혹한으로 동물들도 견뎌내지 못하고 있다. 상어보존그룹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케이프코드에서는 벌써 4번째 동사한 상어가 발견됐다.

케이프코드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서양하이트상어보존프로그램의 미셸 우시젤 대표는 12월 31일 밤 웰플릿 인근 얼음덩이에서 동사한

상어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혹한으로 인해 이를 건져내지는 못했다.

또 지난주에는 3마리의 동사한 상어들이 해안으로 휩쓸려 왔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 상어는 추위에 쇼크를 받아 동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주 케이프코드 바닷물 표면의 온도는 41도까지 떨어졌다. 과학자들은 상어들이 44도 이하의 물에 노출됐을 때 움직일 수 없는 쇼크를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워싱턴 마운틴 최저온도 기록 갱신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햄프셔 최고봉 해발 6,288피트 워싱턴마운틴 정상에 최저기온 기록이 지난달 12월 28일 새벽 5시 화씨 영하 34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워싱턴마운틴 관측소의 기상학자 탐 페드햄 씨는 바람이 시속 110마일에 달해 정상의 체감온도는 영하 89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가장 낮은 온도는 지난 1933년 12월에 기록된 화씨 영하 31도였다.

특히 이 같은 극한의 온도는 관측소 내부에까지 영향을 미쳐 내부 온도도 최고 52도이상 올라가지 못한 상태였다. 페드햄씨는 “히터를 아무리 높이 올려도 외부의 혹한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며 “실내에서도 자켓에 모자까지 쓰고 지낸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조건에서는 조금이라도 피부가 노출되는 경우 60초만에 동상이 걸리게 된다고 페드햄씨는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백년만의 혹한에 이어 올 시즌 첫 대형 폭설

▶▶1면에 이어서

저온도 기록이었다.

북극 같은 혹한은 낮 최고온도가 화씨 20도를 넘지 않는 것이다. 7일 연속 20도를 넘지 않는 혹한은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으며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었던 때였다. 그러나 생애 이런 추위는 처음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것이다.

1월 4일에는 2017-18 겨울 시즌 최초 대형 블리자드 폭풍우가 보스턴을 덮쳐 매사추세츠 거의 전지역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다. 일부 지역에서는 4일 오전에 이미 단전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매사추세츠 재난대책본부(MEMA)에서는 4일 11시 45분 현재 2289가구가 단전됐다고 발표했다.

20F이하 일수	연속기록 마감날짜
7	1/4/1918
6	1/1/2018*
6	1/24/1888
5	2/4/1979
5	2/13/1899
5	12/28/1872
4	1/20/1971
4	1/11/1968
4	1/18/1965
4	12/11/1934

폭설후의 다시 찾아 드는 북극추위도 관건이다. 폭설 이후 1월 초반보다 더 혹독한 강추위가 보스톤지역에 찾아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문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김보경 Bokjung Kim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성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SAT Plus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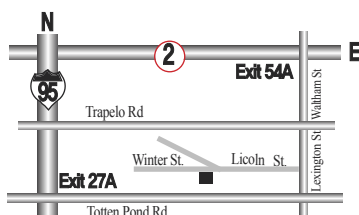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SAT Plus Spring Schedule 2018

Saturday Class Start March 17, 2018

Class	Time
SAT II / MATH IIC Prep	9:00 AM - 11:00 AM Saturdays 3/17/18 - 5/26/18
Chemistry AP/ SAT II Prep	1:00 PM - 3:00 PM Saturdays 3/17/18 - 5/26/18
Biology AP/ SAT II Prep	3:30 PM - 5:30 PM Saturdays 3/17/18 - 5/26/18
SAT II / MATH IC Prep	6:00 PM - 8:00 PM Saturdays 3/24/18 - 5/26/18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민주평통 '한반도 통일 공감 간담회' 개최

김용현 신임 총영사 상견례도 함께 가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지역협의회는 지난달 30일 크라운프라자 호텔에서 새로 부임한 김용현 신임 총영사를 초청, '한반도 통일 공감 간담회' 를 개최했다.

황우성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 주최 '한반도 통일 공감 간담회' 는 윤미자 회장의 인사말 및 신임 총영사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윤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분주한 송년 분위기와 추위에도 불구하고 먼 길 마다 않고 참석해 주신 자문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특히 보스톤에 어제 도착하여 여독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간담회에 가까이 응해주신 김용현 신임 총영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주보스톤총영사로 부임한 김용현 신임 총영사는 인사말을 통해 "교육, 문화 등 세계 최고의 도시 보스톤에 부임함에 더없이 기쁘고 영광스럽다" 며 "임기 동안 민주평통은 물론 보스톤 한인사회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춰 건실한 외교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미안보협력과장,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평화외교기획단장 등 안보와



황우성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 주최 '한반도 통일 공감 간담회' 는 윤미자 회장의 인사말 및 신임 총영사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평화외교를 주도해온 김용현 총영사는 한반도를 둘러싼 대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체계 및 대외 전략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이끌어 나갔다.

김용현 총영사는 "현재 한반도는 엄중한 위기상황임을 강조하면서 북한 핵 문제는 우리 정부가 주도하여 해결해 나가되 국제적 협력 없이는 결코 풀 수 없는 문제임을 주지하고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체계 아래 북핵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 내어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든 외교력을 동원

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정부와의 공조체제는 대북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가장 긴밀하게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자문위원들과 보스톤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간담회 후에는 남궁연 자문위원의 건배사를 시작으로 신임 총영사를 맞이하는 환영식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일일이 자신을 소개하며 김용현 총영사의 부임을 환영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3일 모임에는 안병학 미주 강원도 총연합회 회장, 박천우 보스톤강원도민회장 등 1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강원도민회, 평창올림픽 포스터 부착 나선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강원도민회의 회원들이 1월 3일 보스톤 소재 서울설령탕에서 점심모임을 갖고 본국의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한 포스터 부착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했다.

강원도민회 박천우 회장은 "미주 강원도 총연합회의 지휘 아래 각 지역 도민회 별로 포스터 부착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했다" 며 "보스톤 지역도 강원 도민들이 나서서

각 지역에 포스터를 부착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3일 모임에는 안병학 미주 강원도 총연합회 회장, 박천우 보스톤강원도민회장 등 1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포스터를 들고 기념촬영을 한 후 회원 당 포스터를 분배해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포스터를 부착하기로 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新 홍삼정

저온숙성방식 도입으로 유효성분 강화 및
맛/향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홍삼 유효성분 최적화
진케노사이드 7종 38% UP
아미노산 14종 70% UP
아미노당 368% UP

비유효성분 감소
전분질, 심부질 10% Down

공법 변경과
원가 상승으로
가격이 6년만에
인상됩니다.

\$199.27
▼
\$204.44
Tax 포함

FREE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무료증정

홍삼정 120g 2개 구입시도
같은 프로모션 적용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903

김용현 보스톤 총영사 부임

"한인들 삶에 구체적인 도움 되겠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김용현 신임 보스톤 총영사(53)가 한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총영사관이 될 것"을 약속했다. 지난달 29일 보스톤에 부임한 김용현 주보스톤총영사는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김 총영사는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중심 외교의 기치하에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를 100대 국정과제의 10번째 상위 과제로 중시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총영사관도

이런 국정철학에 맞춰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무고시 24회인 김 총영사는 2014년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부단장, 2016년 평화외교기획단장을 거쳐 보스톤에 부임했다. 1990년 외교부에 입부해 주미국 2등서기관, 한미안보협력과장, 주뉴욕영사 등을 거쳐 미국 외교부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

김 총영사는 "동포 여러분께서도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평창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김 총영사는 "뉴잉글랜드 한인 사회가 더욱 성장하고 크게 발전하



김용현 신임 보스톤 총영사(53)

기를 간절히 소망" 한다고 신년 인사를 끝맺었다.

bostonkorean@hotmail.com



김배규씨 포함된 트리오 카네기홀 공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에서 활동하는 한인 피아니스트 김배규씨가 참여한 트리오 '클라리타스'가 1월 25일 저녁 8시 카네기홀에서 초연을 갖는다.

'클라리타스'는 2009년 바이올리니스트 Karl Orvik, 첼리스트 Jacques Lee Wood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배규로 결성되어 보스톤과 뉴욕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카네기홀 데뷔 공연은 "Voices in Common Time"이라는 주제로 현재 살아있는 미국의 작곡가의 작품으로만 구성된 연주이다. 뉴욕에서 태어나 자라서 Yale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인 작곡가 Martin Bresnick의 1987년도 피아노 트리오

작품,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세계적으로 작곡가 Nico Murky의 2008년도 작품 "Common Ground", 그리고 현재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중인 여성작곡가

Anna Pidgorna의 작품 등 평소엔 자주 접할 수 없었던 동시대의 공통적인 음악을 선보인다.

클라리타스는 2010년 한국의 국립전쟁기념관, 모차르트 홀, 국립강원대학교 초청연주를 비롯 The Faculty recital series at the Tangelwood Institute, LA Encino 챔버 페스티벌,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등 여러 곳에서 초청연주를 가진바 있다. New York에서 열린 많은 예술장르가 합쳐진 종합 퍼포먼스 "Dacner in Moco Moco"에서 공연과 함께 실황 DVD를 출시하는 등 많은 연주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 보스톤의 Bradley Estates Concert series, 에서 리사이틀을 가졌으며 이번 달엔 Falcetti concert in Natick, MA와 Watertown in MA에서도 콘서트를 가질 계획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총영사관 2018년 신년하례회 9일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주보스톤총영사관은 1월 9일 화요일 오전 11시 신년하례회를 개최한다. 김용현 신임 총영사는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뉴잉글랜드 한인 동포

여러분들을 모시고 신년하례회를 갖 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시어 저희 총영사관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 밝혔다. 총영사관 신년하례회에 참가를 원

하는 한인들은 1월 7일까지 나윤정 비서 (617-641-2833 또는 yjah13@mofa.go.kr로 참석 여부를 알려야 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Bruxir Crown
- 미용 치과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캠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 오전10시 ~ 밤10시까지

KAJU 가주
Korean Gourmet Food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캠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2017년 생활밀착형 기사와 재외선거에 큰 관심

조회수 1위, 커먼웰스애비뉴, 매스파이크 교통 통제
조회수 2위, 대한항공 보스턴 취항 관련 소문 기사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17년 한해동안 보스턴코리아 독자들은 생활밀착형 기사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촛불혁명으로 조기 실시된 재외선거에도 예년과 다른 높은 관심도를 드러냈다.

2017년 한해동안 보스턴코리아 닷컴 인터넷 기사 중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기사는 BU 앞 커먼웰스 애비뉴 교각 교체공사로 인한 교통 정체 소식이었다. 7월 말 <커먼웰스 애비뉴, 매스파이크 월요일 아침 교통 대란 예상>이란 제목의 기사는 총 1만5천12명이 조회해 지난해 조회수 1위를 차지했다.



매스파이크와 커먼웰스 애비뉴 모두 보스턴으로 들어가는 출근길이란 점에서 보스턴코리아 독자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90번 매스파이크 도로 위의 커먼웰스 애비뉴 교각을 교체하는 작업은 2018년 올해에도 7월에 예정되어 있어 또 한번의 교통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를 진행한 매사추세츠 교통부는 충분한 언론과의 소통으로 공사현황과 교통통제상황을 빨리 대중에게 알렸으며 빠른 시간에 공사를 끝내 교통혼란을 최소화 했었다.

두번째 가장 많은 조회를 기록한 기사는 9월 말 보도됐던 대한항공 보스턴 취항에 관한 기사였다. 대한항공이 휴스턴 취항을 접으면서 보스

톤 취항에 대한 소문이 돈 것을 다각도로 취재해 9월말 <대한항공 보스턴 직항 취항설 솔솔>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던 이 기사는 1만 884명이 조회했다.

대한항공의 보스턴 취항은 보스턴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다. 한국 항공사를 이용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뉴욕 또는 미국내 타 도시를 경유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매사추세츠 주도 외국항공사의 직항 취항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며 2018년 안에 직항 취항여부가 발표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세번째 기사는 제네시스 비비큐 보스턴 진출에 관한 기사로서 한국 유학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비비큐는 올해 3월 보스턴 하버드 애비뉴에 입점했다. 한국 치킨 브랜드 본촌으로 이미 보스턴 유학생 및 학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기



순위	2017년 가장 많이 본 기사	게재일	조회수
1	커먼웰스 애비뉴, 매스 파이크 월요일 아침 교통 대란 예상	2017.07.30	15,127
2	대한항공 보스턴 직항 취항설 솔솔	2017.09.28	10,898
3	제네시스 비비큐 보스턴 진출 기념 행사 가져	2017.03.20	4,349
4	커먼웰스 애비뉴 BU 인근 구간 폐쇄 26일 부터 "오전 7시 되기 전부터 기다려 투표"	2017.04.13	3,983
5	국내 최대 치킨프랜차이즈 BBQ 보스턴 입점	2017.02.28	3,882
6	뮤지컬 해밀턴 보스턴 공연일자 2018년 9월 확정	2017.03.28	3,801
7	반기문 전 총장 보스턴 총영사관에서 투표	2017.04.25	3,736
8	하버드 페이스북 인종차별 성적 발언 신입생 입학취소	2017.06.05	3,664
9	10명중 8명이상 투표, 보스턴 뜨거운 대선 열기	2017.05.03	3,652

때문에 한국의 가장 큰 치킨 프랜차이즈 비비큐의 입점은 기대를 모았다.

3월 말 <제네시스 비비큐 보스턴 진출 기념 행사 가져>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이 기사는 4344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비비큐는 그러나 주류 허가를 아직까지 받지 못한 관계로 기대했던 치맥을 즐기는 공간으로 자리하지 못하고 있다.

조회수 4위의 기사는 커먼웰스 애비뉴 통제에 관련된 기사였다. 다음으로 관심을 끌었던 기사는 촛불혁명으로 일궈낸 조기 재외선거였다. 4월말 치러진 19대 대선 재외선거에는 새벽부터 기다려 투표하는 열정을 보인 대학원생 등 젊은 층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보스턴의 투표율은 미국 본토 내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열기가 높았다.

<오전 7시 되기 전부터 기다려 투표>라는 제목으로 4월 말 보도된 이 기사는 3905명의 조회를 기록해 5위를 기록했다.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조기에 꿈을 접었던 반기문 전 유엔총장의 투표소식, 10명중 8명 이상이 투표한 보스턴의 투표열기 소식 등이 조회수 8,9위에 올라 재외선거 관련 기사가 2017년 조회수 탑 10에 3건이나 기록했다.

뮤지컬 해밀턴의 보스턴 공연 기사도 관심을 끌었다. 브로드웨이의 가장 인기 높은 작품인

뮤지컬 해밀턴은 지금도 웃돈을 주어야 티켓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티켓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중학생 정도의 학생들은 해밀턴의 랩 내용 전체를 암기할 정도로 학생들에게도 인기였다.



브로드웨이의 작품을 보스턴의 극장에서 순회 공연하는 '브로드웨이인보스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스턴을 방문하게 될 해밀턴에 관심이 뜨거운 것은 당연지사였다. <뮤지컬 해밀턴 보스턴 공연일자 2018년 9월 확정>이란 제목의 기사는 3780명의 조회를 받아 7위를 기록했다. 보스턴의 9월 공연 티켓 구입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티켓 구입에 우선권을 받을 수 있는 브로드웨이인보스턴의 회원에 가입하는 등 관심을 기울여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hsb@bostonkorea.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sboston.net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I 2018 신년사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사랑하는 해외 동포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 올해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지고, 가정에도 웃음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모두 잘 이겨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큰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경제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다시 열었고, 3%대 경제 성장률을 회복했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만들어낸 결실이어서 더욱 값지고 귀한 성취입니다.

저는 동포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동포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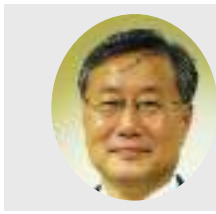
2018년 새해, 국민의 손을 굳게 잡고 더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아 국민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뜻을 더 굳게 받들겠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이 국민 통합과 경제 성장의 더 큰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새해에는 노사정 대화를 비롯한 사회 각 부문의 대화가 꽃을 피우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면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
이제 평창올림픽과 평창패럴림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8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치러지는 대회입니다. 평창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동포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평창의 성공을 만들 것입니다.

새해 동포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김용현
주보스톤 총영사

존경하는 뉴잉글랜드 지역 동포 여러분!
대망의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60년만에 돌아오는 “황금개띠” 해를 맞아 동포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신기원을 이룬 촛불혁명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였으며, 새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사회 전반적인 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 중심 외교의 기치 하에,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를 100대 국정과제의 10번째 상위 과제로 중시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영사관은 이와 같은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에 맞추어 동포 여러분들이 보다 편안히 찾아오실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새해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총영사관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역대 최대인 90여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평창 동계 올림픽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0년전 개최된 서울 올림픽이 동서 냉전의 종식에 크게 기여하였듯이, 금번 동계 올림픽 또한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대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도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간 저희 총영사관에 보내 주신 후의에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 새해에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뉴잉글랜드 한인사회가 더욱 성장하고 크게 발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보스톤총영사 김용현 근배



조은경
뉴햄프셔 한인회장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뒤로 하고, 이제 우리는 무술년 황금 개띠해

를 희망차게 맞이합니다.

지난 해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이 합심하여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염원을 담아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였습니다. 올해는 곧 개최될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고대하며, 우리는 이제 희망찬 미래를 향해 다시 한번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새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정책과 대북정책으로 인해 한인들이 안팎으로 혼란을 겪고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각자의 터전을 굳게 지키고 계시는 동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랑스러운 대한의 후손임을 자각하고 이 미국사회의 당연한 일원으로 자신감있게 역량을 키우고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길 염원하며, 우리 동포들은 하루 하루 고된 일상 속에서도 밝은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 왔습니다. 우리 각자의 노력이 지속되고 서로 화합하여 응집력을 발휘할 때 뉴잉글랜드의 한인동포사회는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뉴햄프셔한인회에서는 동포사회의 결속을 강화하고 한인사회의 위상을 드높이며 우리의 후세들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한인들이 많지 않은 지역이지만, 뜻있는 동포들이 함께 모여 고국의 국경일을 기념하고, 각 지역의 한인들을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동포들에게 필요한 주제로 무료법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행사를 해마다 진행하고 주류사회와 상호협조적인 관계를 맺어오면서, 주정부로부터까지 인정받는 모범적인 이민자 단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본 회가 지난 이십년간 개최해 오고 있는 참전용사 보은행사에는 주정부 고위 관료들이 참석하며, 그 행사내용은 신문과 티비를 통해 주류사회에도 알려져서 한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는데에 일조하였습니다.

본 한인회는 새해에도 더욱 열심히 동포 여러분과 우리 후세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동포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뉴햄프셔 한인회 조은경 배상



이재영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

안녕하세요 로드아일랜드 한인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며 한인회 여러분께 신년인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 8면으로 계속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께 드리는 기본 서비스

-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료, 현 점수 및 정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I 2018 신년사

2년동안 한인회를 이끌며 봉사 할 회장 이재영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임원으로 봉사하며 우리 로드아일랜드와 뉴잉글랜드 한인사회를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도 한인사회를 위하여 봉사 할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지난 경험들은 저에게 여러가지 숙제를 주어진 것으로 믿습니다.

첫째, 우리 한인사회는 회원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원로 분들과 한국전 참전용사분들의 별세로 인하여 또 이민자들의 추스로 인하여 매년 여는 행사 때마다 한인회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밖의 여러 가지 이유로 비어진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한인회는 이민 1세뿐만 아니라 차세대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인 입양자들에게도 적극 권하고 참여케 하여 우리 한인회의 활동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2017년에 마련한 한인회관/문화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한인회의 보급자리를 확고히 할 예정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한인회관을 개방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단체의 모임의 장소를 통하여 친목과 도움을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전문국악인을 참여케 하여 우리나라의 국악을 한인회와 지역사회에 소개하여 널리 알리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이 여러 숙제들은 웹 사이트를 통하여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소통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진행되어온 웹 사이트의 활성화는 우리 한인사회에 많은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때로는 오해와 오류의 소지를 막아주고 있으므로 우리 한인회의 성장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웹 사이트의 활성화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2년동안의 임기 동안 저의 이 계획들과 희망들은 여러분의 도움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디 여러분과 함께 봉사하며 한인회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재영 35대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 드림



윤미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 회장

존경하는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 자문위원 여러분, 희망찬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길 바라며,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2018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2018년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만의 동계 올림픽이 2월에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에 처해진 상황은 결코 간단하지 않지만 새해 아침부터 희망적인 소식들이 있어 기쁩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와 올 수 있을 기대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한민국 헌법 92조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기관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일, 평화통일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자 범국민적 통일기구입니다. 국내의 2만 여명에 이르는 자문위원들이 국내외 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문위원은 전세계 122개국의 3천 6백여명입니다.

제 18기 민주평통의 중점 활동목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며, 해외 자문위원들의 역할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현지 주류사회에 널리 알리고,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 기반을 확충하는 통일공공외교활동을 잘 수행하고, 재외동포사회의 통일여론을 과감하고 통일공감 확산하는 일을 하며, 청소년들의 민족의식과 통일의지를 함양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면서 동포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18기에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가 영광스럽게도 해외협의회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의장이신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앞서 이끌어 오신 회장님들과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리라는 마음을 한번 더 다져 봅니다.

우리 보스톤 자문위원들께 새해에도 민간외교사절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재외동포 사회의 화합과 단합에도 앞장서며, 한반도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우리에게 부여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길 당부드리며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8년 1월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장 윤미자 드림



이경혜
한인 시민협회 회장

존경하는 뉴잉글랜드 한인 여러분께 무술년을 맞이해서 인사 드립니다

지난 2017년 가장 뜻깊은 일은 뉴잉글랜드 시민협회가 “제 1회 MA주 한국의 날” (STATE HOUSE KOREA DAY: 10/26/17)을 보스톤 소재 매사추세츠 주청사에서 개최한 것입니다.

“한국의 날” 행사의 목적은 “한인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것을 알리는 것”과 “주정부 관계자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사에 로버트 들리오 (주-하원의장), Deb Goldberg - 재무부 장관, 태키 쟈, 도날드 윙, 게이코 오렐, 로디 머, 폴 슈미드, 5 아시안계 하원

의원 모두와 한인계 다니엘 고 (전-보스톤 시장 수석 보좌관)가 참여했습니다

올해 정치인턴 모금만찬은 (4/8/17) 성황리에 끝났고, 현재 유일하게 한인계 미국인으로 사라김(Sarah Kim) 재무부차관이 이 연사로서 젊은 세대를 북돋아 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인턴들은 캠브리지 시의원 릴랜드 정사무실, 월시 보스톤시장 및 미셸 우 시의장 사무실에 배치되었으며, 시민협회 인턴들은 다 성공적으로 인턴십을 끝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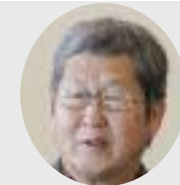
하버드 법대서 제 5회 차세대 포럼 (11/4/17)도 진행했습니다. 전명진 판사, 팸 에딩거 버거힐 대학 총장, 레버렛 워 커먼웰스 세미나 디렉터, 새뮤얼 현 MA 하원의장 보좌관 등과 대니얼 고 전 보스톤시장 비서실장 등은 연사로서 그들의 경험과 미래에 대한 조언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대니얼고는 연방 하원의원 입후보자로서 시민협회와 한인 커뮤니티에서 계속 후원하고 있고 2018년에 한인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직도 미국에 한인계 미국인 중 연방하원의원에 당선된 분이 없습니다.

저희 시민협회는 한인들의 권익향상, 선거참여 독려를 위해 계속해서 정치인턴 모금만찬 (4/14/18), 시민권취득 무료 워크 (8월), 차세대 포럼 (11월) 등의 행사를 시행 할 것입니다.

한인 여러분들 한분 한분 가정에 소망과 화평이 가득하시고 보다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시민협회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이경혜 드림



윤철호
보스톤 한미노인회 회장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포 여러분께서 소망을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앞으로 2년간 보스톤한미노인회장 직을 맡은 윤철호입니다. 제 자신 많이 미력하나마 회원간의 친목과 회의 발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여러해 동안 수고해 주신 전임 회장, 이사장, 그리고 임원의 헌신적인 봉사로 성공적인 노인회가 운영되어 온 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총영사관과 한인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의 후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노인회는 60세 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노인회” 가 바른 표현입니다. 부디 젊은노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9면으로 계속

마음대로 골라본다

\$14⁹⁹

KBS2, KBS1, KBS3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VP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99

지금 전화하세요!
617-955-9112

KTBC, JTBC, JTBC골프,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유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박목TV / 이엔트TV / KTV / 우리방송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장곡부터 대장까지의 전통 장식품, 소품만 내 거기에만 장곡의 마음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침하게!

- 물건을 다는 화지도 전수작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장미의 마음으로 만든 기차기 케이크
- 국내외 인기인사와 장미, 꽃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617.249.3131 Happydollsang@gmail.com

샬롬치과

SHALOM DENTISTRY

일반진료 응급치료

보험: Delta, BCBS, MetLife, Cigna, Aetna, Guardian, Altus Dental

원장: 김진구

영업 시간
화: 오전 8시-오후 5시
수: 오전 8시-오후 6시
목: 오전 8시-오후 5시
금: 오전 8시-오후 12시

978.263.4592 www.shalomdentistry.com
smile@shalomdentistry.com

418 MASSACHUSETTS AVE. ACTON, MA 01720

I 2018 신년사

새해에도 꾸준히 해 왔던 친교시간을 계속할 것입니다. 한편 보스톤의 여러 지역에 사시는 노인들도 참여 할 수 있도록 집회 장소를 순차적으로 옮겨 가며 모임을 가지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회원수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노인회의 활력을 가져 올 것입니다. 아울러 회원들의 일상생활에 유익하고 필요한 여러 지식을 알리는 강연회도 준비 중입니다.

한편 밖으로는 받기만 하는 노인회가 아니라 한인사회에 공헌하는 단체로 발돋움하려는 방안도 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어르신들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와 임원이 최선의 도움을 다 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회원 모두에게 평안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보스톤한미 노인회 회장 윤철호 드림



이현경
재미 한국학교 NE 협의회회장

2018년 무술년(戊戌)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동포님들과 각 가정 그리고 모든 직장과 사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는 해가 되시고 건강과 축복이 함께하여 뜻하는 일을 어느 해보다 더 많이 성취할 수 있는 즐거운 해가 되기를 기도 드립니다.

저는 올해 새로운 계획과 지난해 못다한 계획을 다시 정리하고 전진할 계획도 있지만 먼저 자신의 내면을 바로 세우고 주위를 돌아보며 소통하고 서로 이해를 높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기회를 더 많이 가져 보려고 합니다.

저희 재미 한국학교 NE협의회는 한국어 교육과 문화교육의 확대와 보급으로 아이들에게 뿌리 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회원 학교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유익한 정보를 함께 나누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미래의 지도자가 될 우리 학생들에게 글로벌 리더로서 올바른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어 그들의 삶의 밑거름이 되도록 올해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협의회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보스톤 총영사관과 재외동포재단 및 여러 지역 협의회 단체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행사 때마다 참여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신 우리 동포님들과 행사 진행으로 수고와 노력 그리고 헌신으로 봉사하시는 임원진 여러분들과 이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이현경 회장 올림



강덕식
뉴잉글랜드 지역 교회협의회 회장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2018년이 새롭게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보스톤을 중심으로 하는 뉴잉글랜드 지역의 모든 한인 동포들과 교회들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 보면 역시 지난 한해도 슬프고 마음 아픈 일들이 참으로 많았음을 봅니다. 그러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새해 벽두에 산과 바다를 찾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올해에는 꼭 모두가 안녕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많은 소원을 빌게 됩니다. 올해에는 정말 모두가 평안하고 저 마다의 소원들이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새로워질 때 새해는 정말 새해가 될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1-2)

상황이 좋아 질것을 기대하기 보다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먼저 새롭게 하는 귀한 한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잉글랜드 지역 교회협의회 회장

강덕식목사(보스톤 조이플교회)



윤희경
보스톤봉사회 회장

기록을 깨는 흑독한 추위로 시작하는 새해, 그러나 한인 모두 모두 마음만은 따스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많은 분들께서 보스톤봉사회를 찾아 주시어 큰 보람을 가질 수 있던 한 해였습니다. 한편, 성심껏 노력은 하였으나, 미흡한 점 있을 줄 압니다.

신년사를 통하여 우선 알리고자 하는 점은, 아직 건강보험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는 1월 23일이 2018년도 보험가입 마감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가입자 수가 9백만에 가까워 예년과 비슷합니다. 일부 한인사회에 나도는 잘못된 소문 등으로 인해서 가입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www.mahealthconnector.org 에 접속하여 오바마케어를 검토하십시오. 저소득층일수록 양질의 보험을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새해엔 개정된 소득세법이 발표됩니다. 이외에도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보험, 이민, 사회보장제도 등 주요 법과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트럼프와 공화당은 정부가 무상지원하는 메디케이드(매스헬스)에 대한 정부의 부담을 대폭 감소하려고 할 것입니다. 현재는 가입자가 청구하는 대로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대신에 정부가 배정할 예산의 한도 내에서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비시민권자에게 제공되던 여러 혜택도 삭감 대상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이민자의 천국이 아니기에, 각자의 장래는 자신이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2018년에도 교민들의 건강보험 안내와 세금보고 서비스를 계속합니다.

보스톤봉사회는 연방정부의 인허를 받은 비영리단체입니다. 개인 신상정보의 비밀 보장과 무사 공정을 항시 지켜 갈 것을 약속합니다. 새해에도 이민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손길을 건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슴치 마시고 문의하십시오.

보스톤봉사회장 윤희경 드림



김병국
한미예술협회 회장

보스톤 교민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며 한인 예술인을 돕는 일을 맡아 온 한미예술협회는 이제 태어난지 6년째 되었습니다. 그간 한인들의 작은 섬터가 되기도 하였지만 브랜다이스 대학, 중화문화재단, 지역 박물관 등 보스톤의 많은 학교 및 문화단체들과 같이 협력하여 일하면서 보스톤 문화 사업 단체로 자리잡았습니다.

2018년은 2월 10일 보스톤 박물관 (Museum of Fine Arts)의 음력 설 축제로 시작하는데, 특히 뉴저지 한국전통무용단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봄에는 젊은 성악가들이 함께하는 한국 가곡의 밤과 콩코드 도서관에서의 삼고무(三鼓舞) 공연이 있는 한국 문화의 밤이 예정되어있고, 가을에는 협회 미술전을 비롯해 '아시아 음악인과 클래식 음악'에 대한 강의 및 연주, 한국 국악원 회원의 전통무용 등으로 한국 문화를 전하며 활성화 될 예술의 모습을 구상합니다.

인생은 기다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학울, 졸업울, 취업울, 결혼울, ... 초조함과 불안함이 따르기도 하지만 기다림은 희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세상이 무너져도 희망을 가지고 한그루의 사과나

▶▶ 11면으로 계속

로웰지역 유일 한인 치과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 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메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I 2018 신년사

무를 심는 일은 누구 한사람 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 중요한 일이 한 세대의 일로 끝나지 않고 새 비전을 가지고 더욱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며 이 일을 위해 같이 노력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해에도 많은 분들이 그런 뜻을 같이하고 동참하였습니다. 정정옥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사, 임원, 후원자, 봉사자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 예술협회를 아껴주시고 한국 문화 활성화와 보급에 같이 하여 주셨음에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무술(戊戌)년 새해를 맞아 보스턴 교민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찬 한해가 되고 쉽지만은 않은 이민생활이지만 더욱 힘찬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미예술협회 회장 김병국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선 보스턴 회장 김인숙



김우혁
재향 군인회 회장

그 어느 때보다도 올 한해에는 꼭 통일을 쟁취하여야 된다는 신념으로 새해 아침에 통일에 문을 활짝 열어 봄이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 혼자 만이 욕심이 아니라 우리국민 모두에 소망이며 이산가족들에 바램이라 생각이 든다.

갈등이란 갈(葛)과 등(藤)을 말하는데 같은 칠펙쿨이요 등은 등나무 넝쿨이라 칠펙은 양지를 좋아하는 식물이라 오른쪽으로 회전하며 뻗어가며 등나무는 음지를 좋아하는 식물이라 왼쪽으로 회전하며 뻗어나간다 그래서 갈과 등이 서로 만나면 뒤엉켜 풀리지 않는 다하여 갈등이라 한다 갈등에 끝은 자멸뿐이다.

남한과 북한에 이념 갈등이 있고 여당과 야당에 정책갈등이 있다. 나라에 존폐가 달려있는데도 갈등을 풀지 못하면 단일국가로써 세계에서 제일가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가 없다.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사심을 버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만 갈등을 버릴 수가 있다. 말하자면 우리민족 정체성(正體性)을 해하는 반국가적 행의 즉 허위 비방 등을 삼가 해야만 하며 거짓과 기만 정치를 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통일 국가가 완성된다

이제는 구태정치는 그만하고 정책대결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에 이념갈등으로 나라를 흔들어난다면 우리후손들한테 무엇을 물려 주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후손들이 과연 무엇을 했는가를 심판할 때 지금 우리가 판단이 흐려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6.25남침으로 분열 되어 있는 현실을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다. 북한을 동조하는 세력이 있는 한 북한에 대한 오판으로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익혀진 감자는 생으로 돌아 올 수 없다. 즉 숙불 환생(熟不還生)이다. 정의로운 사람만이 21세기에 주인공이 된다.

남북한이 공생공존 해야 함은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다. 통일은 우리국민이 모두가 열망하고 있다 핵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핵은 우리나라에 금수강산을 폐허의 땅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는 국정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신년 새해에는 조국 대한민국에서 만세 소리가 들려오기를 기대해 본다. 필승 대한민국 코리아 만세 소리가 힘차게 세계방방 곳곳에 울려 퍼지기를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으면 한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뉴잉글랜드 보스턴 연합회
한국 사랑회 회장 김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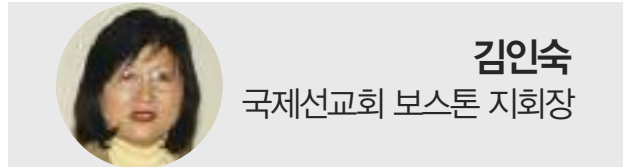


정재형
매사추세츠 태권도협회회장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한인 여러분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태권도 교육에 많은 관심과 격려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들 드립니다.

매사추세츠 태권도협회 산하 모든 관장님과 사범들은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올바른 태권도 문화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한 해가 되도록 할 것 입니다. 하루 하루 매우 분주하고 여유 없는 이민생활이지만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태권도 민간 외교사절의 사명감을 가지고 태권도 보급에 모든 열정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2018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태권도협회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시합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인숙
국제선교회 보스턴 지회장

다사 다난 했던 2016 한 해였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의 새로운 도전에 기대를 걸어보며 이나라가 더욱더 윤택해지길 바랍니다.

보스턴 국제선은 서로 도우며 함께 한마음으로 여러분의 관심 속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더욱더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사회와 국제선을 위해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하여 새해에는 지금까지 계획 속에서 미루어지던 일들을 차곡 차곡 이루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좀더 가까운 이웃 센터에서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며 또 2세들의 네트워킹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백지장도 만들면 가뭇다는 속담처럼 지금까지 우리를 돕고계시는 여러 이사님들과 총영사님과 한인회 회장님 그리고 한미노인회 이하 한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가내에 늘 평안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합니다.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자,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Seoul Seolrye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OUL
Seoul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8
SeoulFoodBoston.com



서울 떡볶이

(구 비빔)



김밥,
라면,
떡볶이가
생각날때!

한국식 정통 분식전문점

한국 분식점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김밥, 떡볶이, 돈까스, 치킨, 순대, 쫄면, 비빔밥등 50여가지의 분식전문점 메뉴)





617.787.5656

SEOUL TOPOKKI

166 Harvard Ave. Allston MA.02134

2018년 무술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1면에 이어서

번 할증료는 2018년, 2019년 단 2년만 실시되는 것이므로 이를 시행하는 실업보조부(DUA)가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업체를 어떻게 단속하게 될지 의문이다. 다만 연체하는 업체에는 이자와 원금 추징이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마리화나 흡연, 판매 모두 합법으로, 마리화나 카페도

2016년 합법화 주민투표에 따라 매사추세츠 주의회는 2016년 12월 28일 임시 회기에서 마리화나 판매점 설치를 2018년 7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따라서 마리화나의 흡연, 소지, 제배 등을 합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마리화나를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인 상태인 이상한 동거가



지속됐다. 마리화나는 여전히 주류처럼 공공장소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주법에 따라 설치된 마리화나 규제 위원회는 마리화나 카페, 판매점 운영 등 마리화나 규제에 관한 법안을 내년 3월까지 최종 확정되어야 한다. 마리화나 판매점, 마리화나 카페 등 마리화나 관련 비즈니스는 2018년 7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보스턴 플라스틱 백 사용 금지

보스턴 시의회는 12월 초 보스턴 시내에서 플라스틱 백 사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마티 월시 시장은 12월 18



일이 법안에 서명했다. 당초 플라스틱 백 사용금지가 저소득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환경 보존에 대한 의지가 일단은 법안통과에 큰 동력이 됐다.

마티 월시 시장은 다만 시행에 있어서 판매점이나 소비자들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어 올해 12월부터 사용 금지가 발효되도록 했다. 올해 12월부터는 비닐 백이나 종이백을 원하는 경우 5센트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보스턴은 케임브리지, 브루클라인 등의 시와 타운의 비닐백 금지 대열에 합류했다.

자동차 인스펙션 변경

지난해 9월 매사추세츠주는 대대적인 자동차 인스펙션 변경을 실시했다. 인스펙션 프로그램은 하이테크를 도입해 무선 에미션 테스트, 자동차 번호판, 마일리지기, 차량고유번호등을 찍는 카메라 등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인스펙션장에 감시카메라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인스펙션 법규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유예했었다. 그러나 올해 1월 1일부터는 이 감시카메라 사용이 의무화된다. 따라서 자동차 인스펙션은 더욱 까다로워지고 인스펙션 결과에 따라 수리비용도 훨씬 더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매사추세츠 주류법 변경 술값 인상될 듯

매일 저녁 한잔의 와인 즐기기는 한인이라면 올해 와인 값을 더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많아졌다. 매사추세츠 주류법 변경을 위한 타스크포스는 2017년 12월 말 주의 주류법의 전면개정안



을 권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와인, 맥주, 위스키 등 주류에 대한 물류세를 50%가량 대폭 늘리고 도매상들이 대량으로 구입 시 할인하는 제도를 없애도록 권고했다. 달리 이야기하면 술값이 대폭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규제완화도 제안했다. 식품점 체인의 주류허가 수 제한을 완화하고 타주의 운전면허도 정당한 신분증으로 허용한다. 또한 업체들의 도수 높은 하드리커 라이선스 발급을 쉽게 하도록 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hsb@bostonkorea.com

소비자 분노, 애플 저렴한 가격에 구형 폰 배터리 교체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애플의 최고경영자인 팀쿡은 12월 28일 소비자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애플 아이폰 배터리가 오래된 경우 느려지는 현상에 대해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던 점을 사과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1월 말부터 아이폰 6 이후 모델의 배터리를 할인된 가격에 교체해줄기로 했다. 애플은 현행 \$79인 배터리 교체비용을 \$29로 낮춘다. 이는 2018년 12월 종료된다.

팀쿡은 "아이폰 배터리 수명에 대해 좀더 보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는 배터리 수명이 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팀 쿡은 비록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애플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폰을 구입케 하려는 방법의 하나로 오래된 배터리의 폰을 느려지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과거에 결코 의도적으로 애플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키지 않았으며 고객의 업그레이드를 장려기 위해 고객의 애플폰 사용에 불편을 주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애플은 오래된 배터리로 인해 폰이 갑자기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폰을 느려지게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설명은 기술적으로 맞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애플의 이 같은 발표는 소비자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여러 지역에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한 프랑스 소비자보호단체는 12월 27일 신규 폰 판매를 위해 구형폰을 다운그레이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프랑스에서는 이 같은 행태는 최고 감옥 2년형에 이르는 중죄다.

또한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비자들은 애플이 폰을 느려지게 하기 전에 미리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 소송에서는 1조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도 이번 사건을 조사키로 했다.

소비자들의 주장은 보통 두가지 논리에 기초한다. 첫째, 애플이 비밀리에 전화기 성능을 느리게 했다. 둘째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기존의 폰을 고치기 보다는 새로운 폰을 사는 것을 택했다.

뉴욕 동부지법에 제기된 한 소송에서는 "애플이 배터리 교체가 폰의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렸더라면 비싼 신형폰으로 바뀌기 보다는 저렴한 배터리 교체를 선택했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hsb@bostonkorea.com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thepeterginateam@gmail.com



MA주 최저임금 15달러까지 인상 가능할까

캘리포니아, 뉴욕에서는 15달러까지 인상 예정
MA주에서는 마리화나 법안 때문에 처리 못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1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기 위한 노력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계속 진행 중이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매사추세츠 주 노동 인력 개발 소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최저 임금은 2015년 1월 1일부터 매년 1달러씩 인상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현행 시간당 11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는다.

미국 내 18개 주에서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으며, 최저임금을 11달러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을 의회에서 허락한 주도 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주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종업원이 26명 이상일 경우 2022년부터 최저임금이 15달러이며, 25명 이하일 경우에는 2023년부터 최저임금이 15달러가 된다. 뉴욕 시는 10명 이하 회사에서는 2020년부터, 11명 이상 회사에서는 2019년부터 최저임금이 15달러가 된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의회의 노력

과는 별도로 시민단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레이즈 업 매사추세츠(Raise Up Massachusetts)에서는 오는 11월 주민투표에서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레이즈 업 매사추세츠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될 경우 약 94만 3천명, 매사추세츠 노동자의 29%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의회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찾고 있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 과정이 예상치 못한 난항을 겪고, 무엇보다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주민투표로 통과되면서 이에 대한 후속 법안 처리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었다.

매사추세츠 주 상원과 하원에서는 각각 최저임금 인상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법안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향후 4년 동안 매년 1달러씩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불이 된 이후에는 물가 인상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jsi@bostonkorea.com



최저임금 인상 법안은 매사추세츠 주 의회 산하 노동 인력 개발 소위원회에서 처리 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강추위 때문에 MA주 학교들 방학 연장

2일에 등교 시간 늦추거나 하루 전체 쉬기도
MBTA 전철과 버스도 추위 때문에 지연 운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기록적인 강추위가 지난 주부터 뉴잉글랜드 전역을 덮치고 있는 가운데, 매사추세츠 공립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방학을 연장하기도 하였다.

크리스마스 주간부터 시작된 짧은 겨울 방학은 1월 1일에 끝나고 학생들은 1월 2일부터 정상 등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주의 많은 학교에서 개학일인 2일에 등교 시간을 2시간 늦추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2일 하루 전체를 더 쉬기도 하였다.

프레드릭 포레스테어 에버릿 교육감은 “우리 지역에서는 많은 가정에서 이 같은 날씨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 며 “우리 학교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급작스런 강추위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에버릿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걸어서 등교를 하기 때문에 혹독한 날씨는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 에버릿 학교에 속한 모든 학교들은 2일까지 방학을 연장해 휴교를 하여 7,200여 명의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았다.

피바디 학교는 개학일에 수업 시작 시간을 2시간 늦추었다. 피바디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크리스틴 버클리는 “우리 학교 건물은 오래되고 낡았다. 난방을 켜지 한 시간이 안 되었을 때 학교에 있게 된다면 아마 굉장히 추울 것이다” 라고 말했다.

추운 날씨 때문에 스쿨버스에 문제가 생겨 등교 시간을 늦춘 학교들도 있었다.

일반 시민들은 대중교통 때문에 새해 첫 출근을 서둘러야 했다. MBTA는 추운 날씨 때문에 전철과 버스가 지연될 수 있다며, 평상시보다 적어도 20분 먼저 출근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jsi@bostonkorea.com

보스톤 경찰, 무단으로 총기 휴대 비행기 탑승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보스톤 경찰이 연방 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개인적인 용무로 비행기를 탈 때 권총을 소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다. 또한 이 경찰관은 자신의 친구까지 공항에서 이루어

지는 보안 검사를 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8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인 브루스 스미스 경사는 최대 1년형을 선고 받을 예정이다. 또한 보스톤 경찰에서 사직하고 벌금으로 7,500달러를 납부

해야 한다.

스미스 경사는 지난해 기소되었다. 스미스 경사는 공항을 이용할 때 연방 보안 요원들에게 자신은 공무 수행 중이며,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소장에 따르면 스미스 경사는 로건 공항에서 출발하는 28번의 여행에서 이 같은 거짓말을 하고 총기를 휴대한 채 비행기에 탑승했다.

스미스 경사의 변호사는 총기를 휴대한 채 비행기에 탑승한 다른 의도는 없었으며, 단지 부모를 만나기 위한 여행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jsi@bostonkorea.com



보스톤 경찰이 공무 수행 중이라는 거짓말로 총기를 휴대한 채 수심 차려 비행기에 탑승했다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BLISS IMAGE SALON & SPA

반 영구 확장 전문
(Now Offering Permanent Makeup)

- 엠보 자연 눈썹(Microblading)
- 자연 눈썹(Eyebrows)
- 아이라이너(Eye Liners)
- 입술(Lips)
- 헤어라인(Hair Lined)
- 속눈썹 연장(Eyelash Extension)
- 피부(사마귀, 점 제거), 머리, 왁스

Service provided by a licensed artist
CHAE (MA & NY Licensed)

By Appointment Only

11A Corinth St. Roslindal MA 02131 617.323.0023

형제 떡집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달리버리: 목 - 일요일까지
픽업: 목-일, 새벽부터 오전9시까지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FAX: 978.796.5245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트럼프 타격은 대학가에도...유학생 줄어 재정난

유동적인 이민정책에 유학생 불확실성 증가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부족한 교육 재정을 메우던 대학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반(反)이민 정책의 또 다른 희생자로 꼽혔다.

2일 뉴욕타임스(NYT)은 미국국제교육기관(IEI)이 미 전역의 50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올해 가을학기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지난해 대비 7% 감소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감소로 미 중서부 지역 공립대학이 특히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학은 유학생의 학비에 크게 의존해왔다.

센트럴 미주리 대학교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비로 일반 학생의 2배 가량인 6445달러를 납부한다. 이들이 줄어들면서 학비 수입이

1400만달러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이 대학이 올해 유치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944명. 지난해 1500여명과 비교하면 약 40% 줄어든 수준이다.

학교 측은 허리띠를 졸라매 운영비 부족을 만회하고자 격주로 발행하던 교내 신문을 온라인으로만 제공하기로 했다. 인쇄비 3만5000달러를 절약하기 위해서다.

다른 학교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캔자스주 맨해튼 주립대학도 일부 수업을 폐강하고 인원을 감축했다. 오하이오주 라이트 스테이트 대학교는 최근 국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교내 수영팀을 해체하고 교수진도 해고했다.

유학생 수의 급감으로 미 대학의 재정난이 악화되자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달 미국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다.

무디스는 보고서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가 부족한 대학교일수록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것"이라며 "유학생 등록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이유는 유동적인 이민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학 관계자들도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들에 대한 시선이 해외 유학생들의 유입을 막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영어권 국가와의 경쟁과 주요 고객층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브라질, 인도 등의 경제 상황도 유학생 감소의 원인이 되겠지만 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

매튜 윌슨 애크론 대학 학장은 "인도 출신 유학생들이 200명 가까이 줄어든 이유 중 하나는 비자 신청이 굉장히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라고 말



외국인 유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미국 대학 다수가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반이민 행정 명령을 통해 아랍권 중심 7개국자를 대상으로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했다. 비자 취득 요건도 강화해 유학생의 졸업 후 미국 체류도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이 유

학 대상국으로서 미국의 매력을 반감시킨다고 NYT는 풀이했다. 한 대학 교수는 "미국 대학교들이 홍보하는 '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지역만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적인 비상사태"라고 경고했다. seunghee@news1.kr

인텔뿐 아니라 대부분 CPU 칩에서 보안 문제 발견돼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컴퓨터(PC)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CPU칩 전반이 설계적 결함으로 인해, 해킹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3일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이번 문제는 모든 컴퓨팅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결함보다 파급력이 강하다.

컴퓨터와 많은 서버용 칩을 만드는 인텔과, 모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을 생산하는 ARM 홀딩스는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칩 제조사인 AMD

역시 같은 문제를 겪고 있음을 시인했다.

스티브 스미스 인텔 데이터센터엔지니어링 그룹 책임자는 "한 공급업체 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일반적인 디자인적 접근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뷰 우즈 애틀랜틱카운슬 사이버안전혁신위원은 "인텔, AMD, ARM이 모두 이런 문제를 겪는 거라면, 10년 미만의 모든 컴퓨팅 시스템이 대상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두를 교체해야 한다. 산업 관계자들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업체 모두가 합심해 산업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마이크로소프트는 운영체제 패치를 통해 칩 설계 결함으로 인한 문제를 하나 수정했다. '멜트다운(Meltdown)'으로 알려진 이 결함은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운영 체제 중앙 메모리에 침입해 액세스 권한이 없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멜트다운 결함은 소프트웨어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보안 전문가들은 모든 컴퓨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펌웨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폴 코허 보안연구원은 멜트다운은 단기적으로 "엄청난 공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한편, 스펙터(Spectre)는 장기적으로 "

매우 긴 싸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펙터는 칩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별도의 프로그램에 있는 데이터에 운영 체제를 호출하지 않고도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오류다.

인텔과 구글에 따르면 이 칩 문제는 지난해 6월 구글 보안 연구원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구글은 블로그 포스트에서 자사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용자와 광범위한 웹을 보호하기 위해 업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와 협력했다"고 밝혔다.

우즈는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이 가장 취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장 큰 클라우드 업체인 아마존 웹 서비스는 이날 모든 시스템에 대한 업데이트를 거의 완료했다면서도 고객들이 자체 운영 체제를 패치할 것을 권했다. minssun@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관심한 준비하는 성인
주택융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동상대출 나의노후?
캐쉬아웃 리파이낸스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 최적의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978.314.8818
mlee@mbamortgageco.com
2 Adams Place, Suite 410 | Quincy, MA 02169

점심 뷔페 시작!
월-토: 11:30~2:30
일, 공휴일: 12:00~3:00

불판

바베큐&라운지

차가운 가을밤, 친구가 그리웁니다.
친구와 한잔, 불판



영업 시간
주 7일 오픈. 금,토 : 밤 11시까지

소주, 칵테일 및 다양한 주류
가라오케 및 각종 연회시설 완비

BULPAN RESTAURANT
Korean BBQ, Hibachi, Sushi & Chinese
781.863.2800
27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크라우저 &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개인상해법 전문

- ✓ 전문인력 취업비자(H-1B)
- ✓ 투자비자(E-2)
- ✓ 주재원 비자(L-2)
- ✓ 투자이민(EB-5)
- ✓ 특기자 비자(O-1, P-1)
- ✓ 가족초청이민
- ✓ 단기연수원비자(H-3)
- ✓ 시민권 신청
- ✓ 취업이민
- ✓ 주방재판
- ✓ 교수/연구직 이민
- ✓ 개인상해(교통사고)



▶ **BOSTON Office** Tel. 617-566-7979
1309 Beacon Stree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Fax. 617-566-7982
▪ Email : info@stevesuh.com ▪ 홈페이지(국문/영문/중문) : stevesuh.com / suhlawyer.com
▶ **MIAMI Office** ▪ Tel. 305-372-7776 ▪ 28 W Flagler St Suite 330 Miami, FL 33130

정부, 9일 판문점 고위급 남북회담 제의

김정은 신년사 하루만에 전격제안 시기, 장소, 형식에 구애없이 대화하자 판문점 평화의집 개최, 미와 협의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정부가 고위급 남북당국 회담을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의 대화 제안에 따른 불과 하루만에 이뤄진 전격 제안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일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남북이 마주앉아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참가 문제 협의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렇게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전날(1일) 신년사에서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다"고 밝힌 데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7월 군사

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제안에 이은 두번째 공식 대북 대화 제안이기도 하다.

만약 북한이 이번에 회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지난 2015년 12월 개성공단에서 열린 제1차 차관급 당국회담 이후 2년여만의 남북 당국회담 성사다.

조 장관은 "시기, 장소, 형식 등에 구애없이 북측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의제, 대표단 구성 등 세부절차에 대해 협의해 나갈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사전 교감이 전혀 없었다고 밝힌 조 장관은 회담 참석자급에 대해서 "약간은 오픈해 놓은 상태"라며 "가능하면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서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북한 연락채널 복구를 통해 유연하게 참석 대상

을 구체화 하겠다는 이야기다.

조 장관은 고위급 회담으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그동안 남북대화가 상당히 오랜 기간 단절됐고 북측도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당국이 서로 마주앉게 된다면, 이를 계기로 남북대화 재개나 남북관계 복원 문제들로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단 남북당국 회담이 개최가 된다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나 시기적으로 보나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측 참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이나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 중단에 대화의 조건으로 제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북측 대표단을 보내는 문제와 관련된 협의에 집중"할 것이며 "다른 사항을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미국 측에 제안한 올림픽 기간 한미 합동군사훈련 연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회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에 대해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미 군사당국간에 이문제는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의 핵문제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질문에는 "지금 한반도 핵문제의 엄중성을 감안할 때 남북 당국간에 마주앉게 된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 서로 관심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북측에 제기해야 될 사항들은 북측에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

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이번 회담 제안에 앞서 미국과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오고 있고, 오늘도 우리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당국회담을 제의한 것 관련해서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뉴스1 기사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hsb@bostonkorea.com

조명균 통일장관 1월 2일 남북회담 제의 브리핑 질문 및 답변 전문

Q. [뉴시스 김지훈] 이번 공개 제의는 북한 측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가요.

A. "북측과 사전 교감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북측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Q. [세계일보 김민서] 고위급 회담 제의를 하었는데, 우리측 수석대표로는 청와대 인사가 나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통일부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급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이라고 약간은 오픈해 놓은 상태입니다. 북측 나름대로 입장을 밝혀올 테고요. 그리고 함께 제의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서 협의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대표단 구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Q. [한겨레 정인환] 다양한 방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평창만 보면 체육회담을 한다랄지, 아니면 다른 방식도 있었을 텐데요. 고위급 회담을 하겠다는 것은, 어제 북한이 신년사에서 밝힌 것처럼 이번 계기로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회담으로 나아갈 거라는 말씀이지요. 왜 고위급 회담으로 결정하였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 일단 남북당국회담이 개최된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나 시기적으로 보나 평창동계올림픽의 북측 참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남북대화가 상당히 오랜 기간 단절되어 있었고, 북측도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당국이 서로 마주앉게 된다면 여

러 가지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일단 우리 정부로서는 북측 김정은 위원장도 신년사에서 남북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 있다고 제의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일단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으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제 같은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사전에 서로 간에 세부절차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된다면 그 협의를 통해서 정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Q. [YTN 황혜경] 고위당국회담을 제안하기에 앞서 미국과 어떤 정도까지 논의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오늘 09:00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서 북측이 응답하지 않았는데, 오후에 다시 시도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지요.

A.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오고 있고,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당국회담을 제의한 것과 관련해서도 긴밀하게 협의해 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판문점 연락채널 복원과 관련해서는, 글썽요. 저희로서는 가급적 빨리 복구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지금 제의했으니까 북측의 반응은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Q. [통일뉴스 조정훈] 일각에서는 북한 신년사를 보면 한미 군사훈련과 전략자산 순환배치 중단이 대화의 조건으로 걸려 있는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회담제와 관련해서 그러한 것을 북한이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요. 북한이 이 부분을 들고 나온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요.

A.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측도 여러

가지 회담에 나오는 의도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북측 대표단을 보내는 문제와 관련된 협의를 제안했기 때문에 일단 북측도 그러한 협의를 준비해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그 의제에 저희가 협의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기타 양측이 서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도 가능하다면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평창동계올림픽의 북측 대표단 참가에 집중하고,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안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북측이 남북당국간 대화를 제의해 오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우려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부로서는 그러한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에서, 그러한 범위 내에서 회담을 잘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TV조선 김정우]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하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최문순 강원지사나 여러 분들이 북측과의 접촉을 통해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들었다고 직접 공식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사전 교감은 없었는데, 이러한 당국회담과 관련해서 비공식 또는 비공개 접촉도 전혀 없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A. 지난번 기자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많은 여러 경로로 북측의 참가를 권유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파악된 것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측이 참가와 관련해서 어떤 신호를 보인 것은 저희가 볼 때 현재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저희로서는 그렇게 판단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북측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제안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당국 차원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의, 비공식적으로라도 그러한 것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Q. [중앙데일리 이성은] 아까 기타 양측이 관심 있는 사안은 가능하다면 논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비핵화 문제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A. 북한 핵문제, 한반도 핵문제의 엄중성을 감안할 때 일단 남북 당국 간에 마주앉게 된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 서로의 관심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북측에 제기해야 될 사안들은 북측에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Q. [채널A 유승진] 이번에 회담 제의를 하기 전에 미국 측과도 협의했던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한미 군사훈련 연기와 관련해서도 미국 측과 확실하게 조율한 다음에 이번 회담 제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한미 군사훈련을 평창동계올림픽 계기에 연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현 단계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미 군사당국 간에 이 문제는 결정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 통일부 국제협력과 제공)

文대통령, 위안부 할머니 뜻과 정의에 어긋난 합의 사과

대통령 신년회견인 오는 10일 전 후속책 낼듯 위안부 할머니들, 日에 사죄 받게 해달라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28일 타결된 한일위안부합의와 관련,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견이 배제된 합의였다며 사과했다.

이로써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이 재협상 쪽에 한층 더 가까워진 것이 아니냐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신년회견이 예정돼 있는 오는 10일 전에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한 후속대책을 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8분을 초청해 오찬을 가진 가운데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일위안부합의의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발표된 한일위안부합의검토 TF(태스크포스) 조사결과를 두고 해당 합의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

다.

TF는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정부 입장에서 타결한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다음날(12월2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4일) 인사말에서 "할머니들을 전체적으로 청와대에 모시는 게 꿈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한자리에 모시게 돼 기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과거 나라를 잃었을 때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했고 할머니들께서도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데 해방으로 나라를 찾았으면 할머니들의 아픔을 보듬어드리고 한도 풀어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오히려 할머니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대통령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내용과 절차

가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으로서 지난 합의가 양국간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했다"고 말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사과, 법적 배상을 26년이나 외쳐왔고 꼭 싸워서 해결하고 싶다.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데 부담드리는 것 같지만 이 문제는 해결 해주셔야 한다"고 했다.

이옥선 할머니도 "우리가 모두 90세가 넘어 큰 희망은 없지만 해방 이후 73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사죄를 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나. 사죄만 받게 해달라. 대통령과 정부를 믿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옥선 할머니도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13세에 평양에서 끌려가 아직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길원옥 할머니는 인사말 대신 가요 '한 많은 대동강'을 불렀고 지난해 발매한 음반 '길원옥의 평화'를 문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오찬이 끝난 후 김정숙 여사는 할머니들께 목도리를 직접 매드렸다.

김 여사가 할머니들께 선물로 드린 목도리는 아시아 빈곤여성들이 생산한 친환경 의류와 생활용품을 공정한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방문하고 있다

가격에 거래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국내 최초 공정무역 패션 브랜드를 선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후 할머니들 한 분씩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인 김복동 할머니의 병문안도 다녀왔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중 한분인 김복동 할머니는 건강이 악화된 상태다.

나눔의 집'에서 출발한 할머니들은 비서실에서 제공한 의전 차량을 이용해 청와대까지 경찰의 에스코트 아래 이동했다.

경호처는 또 할머니들의 건강상 불편에 대비해 앰블런스까지 차량 이동시 함께 배치했고 오찬 행사 후, 할머니들이 나눔의 집에 돌아갈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할머니들을 모셨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여사와 함께 충무실 현관 입구에 서서 입장하시는 할머니들을 일일이 반갑게 맞이했다 한다. 문 대통령 내외는 개별 이동으로 늦게 도착하신 한 할머니를 위해 15분간 현관에 선 채 기다렸다 함께 입장하기도 했다.

cho11757@news1.kr

구도 역전된 KBS 이사회, 고대영 사장 해임 초읽기

방통위, 김상근 목사 추천...다음주 이사회 소집될듯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기독교계 원로 김상근 목사를 KBS 이사회 보궐 이사로 추천하면서 KBS도 마침내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이르면 다음주 KBS 임시이사회가 열려 고대영 사장 등 경영진 교체 논의가 시작되고, 노조도 사상 최장 총파업을 철회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김 목사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을 지낸 기독교계 원로로 CBS 부이사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 KBS 이사 임명권을 가진 청와대가 임명을 최종 재가하면, 김 목사는 올 8월까지 강규형 전 이사의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된다.

이로써 KBS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는 여권 다수로 재편됐다. 옛 여권 추천 인사인 강규형 전 이사가 지난달 해임되면서 KBS 이사회 구도는 여야 5대5 동수였다. 여기에 김 목사가 이사로 합류하면 현 여권인사는 6명으로 의결 정족수(과반)를 차지한다. 여권 인사들이 뜻을 모아 임시이사회를 소집, 이인호 이사장을 비롯해

고대영 사장을 해임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번주 안으로 김 목사를 이사를 임명하면, KBS 여권 인사들은 이르면 다음주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 이사장 불신임안 및 고대영 사장 해임안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불신임안 및 해임안 처리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KBS 보궐이사 임명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고, 업무추진비 유용 등을 이유로 해임된 강 전 이사도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KBS 정상화를 더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경영진이 교체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의 총파업이 이날로 123일째 이어지면서 방송 파행이 심

각한데다 평창 동계올림픽 등 현안이 널려 있기 때문이다. 고대영 해임 후 신임 사장을 뽑는 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속히 경영진 교체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KBS새노조 관계자는 "KBS 구성원들이 유례없는 최장 기간 파업을 접고 방송현장에 복귀해 KBS의 빠른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고대영 체제' 적폐를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통위도 이날 KBS 노조의 업무 복귀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방송 정상화를 위해 KBS 노조가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chacha@news1.kr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전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제49차 전체 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를 두드리고 있다

통일부, 北과 고위급회담 협의중 이틀째 판문점 연락

(서울=뉴스1) 양은하, 문대현 기자 = 통일부는 4일 이틀째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측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남북 회담과 관련한 합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 장관이 당국회담을 제의했고 그다음에 남북 판문점 통해서 이제 협의해 나가자고 해 연락채널이 열렸다"는 점에서 합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0분 북측이 먼저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접촉해 오면서 23개월 만에 통신채널이 복구됐다. 이후 오후 6시7분 업무 마감 통화를 했고 이틀째인 이날 오전 9시30분에도 북측에서 먼저 연락이 와 업무 개시 통화를 했다.

다만 아직까지 양측 전화 통화에서 정부가 제안한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도 "현재까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담 제안을 해놓은 상황이기에 정정화된 판문점 연락 채널 통해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며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 북측과 통화를 할 예정이다. 당국자는 "연락 사무소에 정시 출퇴근 개념으로 상황이 있으면 연장근무하고 주고받을 게 없으면 '여기서 업무 끝냈시다'고 해서 끝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문점 연락 채널 복원을 발표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북측 회담 대표로 나올 경우 정부 카운터파트너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노동당 외곽기구이던 조평통이 지난 2016년 6월 국무위원회 산하로 들어가 정식 국가기구로 승격됐기 때문이다. 당국자는 이어 "회담 성격, 의제는 관계부처와 합동해서 대표단을 꾸려 온 관례를 참고해서 대표단 구성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또 고위급 회담에 앞서 실무회담을 별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담의 시기 장소 의제 성격 이런 것들을 오픈해놓은 상황이니, 별도로 열리게 될지 그런 것에 있어서 북측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letit25@news1.kr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Realtor Direct: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Realtor Direct: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	---	--	--	--

Featured Business Listing

 편의점 매매 캠브리지 변화한 상권 및 아파트근처에 위치, 연매상 \$280,000 이상, 숙련된 직원들로 쉬운 운영. Asking \$85,000	 세탁소 매매 보스톤 남쪽에 위치한 Drop-off 세탁소, 좋은 동네 변화한 길에 위치, 연매상 \$100,000 이상. Asking \$50,000	 Fish Market 보스톤 남쪽 변화한 물에 위치, 연매상 \$450,000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 To-go 메뉴로 Extra 수입, 소비자 리뷰가 매우 좋은 가게, 넓은 주차공간 Asking \$210,000
---	---	---

NEW LISTINGS

LISTINGS

 세탁소 보스톤과 인근에 위치, 드롭오프와 풀플랜트 매매, 연매상 \$320,000 + 고정된 안정적인 수입 Asking \$350,000	 세탁소 보스톤 인근에 위치, 연매상 \$200,000 + 안정적인 고객층과 새로운 기계들 Asking \$230,000	 살롱 & 스파 Roslindale에 위치, 1,200 S.F. Rent \$2,500 Asking \$45,000	 한식&일식 식당 Plymouth 센터에 위치, Full liquor, Lots of foot traffic, great exposure, recently renovated, Asking \$450,000	 세탁소 보스톤 공항에서 20분 거리에 위치, 연매상 \$150,000 + Wholesale 좋은 동네 무경쟁 안정적인 수입, 오프 파이낸싱 가능 Asking \$195,000	1. Full Plant 세탁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 2. Full Plant 세탁소 : 보스톤 북부 인근, Asking \$150,000 3. Full Plant 세탁소 : Tewks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0,000 4.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5. 보스톤 인근 일식당 : Asking \$225,000 SALE PENDING NEW Full Plant 세탁소 보스톤 인근 North Shore, 연매상 \$190,000, Asking \$165,000
 한식&일식 식당 보스톤 서쪽, Full Liquor, 연매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599,000	 일식당 Beer and wine 포함, Lawrence 지역, 좋은 위치 Asking \$120,000	 세탁소 Brookline 좋은 위치, 연매상 \$220,000 이상, 보장된 수입, 1년된 Hydro Carbon 기계 Asking \$230,000	 비즈니스 콘도 Brookline, 현재 세탁소영업중, 좋은 렌트수입 Asking \$509,000	 한국식당 보스톤 남부에 위치, Full liquor,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Asking \$140,000	 세탁소 보스톤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60,00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보경: 508.361.6064 줄리 전: 978.494.2043 비비안 유: 617.935.2713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Yousuf Masud
978.995.1049



William Glanton
978.394.2017



Vicky Xiao
617.480.6362



NJ Kim
617.615.7596

NEW LISTINGS



Just Listed: Single Family
73 Carriage House Path
Ashland, MA
Asking: \$415,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Under Agreement: Condominium
26 Broad St., #101
Marlborough, MA
Asking: \$340,000
Listing Agent: Maria Koral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Newton, MA 02461
Asking: \$100,000
Listing Agent(s): Janice Lee



Just Listed: Single Family
16 Abbey Road - Unit 16
Sherborn, MA
Asking: \$1,2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Single Family
16 Abbey Road - Unit 16
Sherborn, MA
Asking: \$1,2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Rental
16 Abbey Road - Unit 17
Sherborn, MA
Asking: \$3,750/mo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Kevin Curry
978.852.2969



David J. Oliveri
508.400.080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T: 781.259.4989, F: 781.259.4959

Newton Office:

95 Union St., Newton, MA 02459 T: 617.969.4989, F: 617.969.4959

Belmont Office:

451 Common St., Belmont, MA 02478 T: 617.826.3434, F: 617.826.3446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NEW LISTINGS



Steve Son
617.290.0623



Ping Bai
617.233.4162



Victoria Tu
978.201.5615



Angela Eleazar
617.319.6657



Ken Tlagae
617.959.5500



Ayla Yildi
781.249.4872



Just listed: Single family
26 Glendale St.
Maynard, MA
Asking price: \$379,900
Listing Agent: Nancy Marcis



Just listed: Condominium
120 Parker St. - Unit 26
Acton, MA
Asking price: \$189,900
Listing Agent: Laura Rakausk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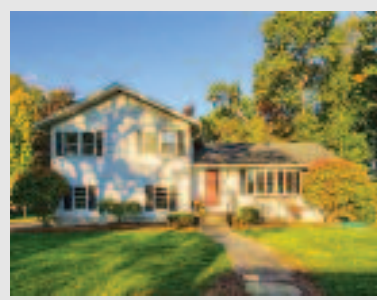
Just listed: Single Family
90 Old Stow Road,
Concord, MA
Asking price: \$569,000
Listing Agent: Carol Lenox



Just listed: Single Family
215 Whitcomb Avenue
Littleton, MA
Asking price: \$575,000
Listing Agent: Johanna Parlon



Just listed: Town House/Condo
109 Crystal Brook Way - Unit B,
Marlborough, MA
Asking price: \$284,900
Listing Agent: Clif LaPorte



Just listed: Single Family
86 Stuart Avenue
Leominster, MA
Asking price: \$349,900
Listing Agent: Allen Quinn



Maria Koral
978.973.6043



Nancy Marcis
713.817.6970



Clif LaPorte
978.424.3045



Leslie Luppold
508.423.1535



Johanna Parlon
978.501.4753



Teresa Vitelli
781.619.0473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Bill Busiek
781.820.1569



M. Keith Peifer
304.963.2923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시너지 성형외과'

얼굴주름, 피부 처짐이 고민이라면 '안면거상술'

자기관리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자기관리의 대표 수단 중 하나인 동안 페이스도 각광 받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늘어난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안면거상술에 대한 인기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안면거상술은 미간주름, 이마주름, 팔자주름, 목주름 등 얼굴 전체적인 주름을 없애주어 매끈한 동안 페이스를 만들어 줄뿐만 아니라 기존의 윤곽수술 후 볼 처짐이 생겨 고민하는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실리프팅을 받았지만 효과가 없는 경우에도 적합하다.

이렇게 주름 개선에 효과적인 안면거상술은 전문의의 숙련도 차이에 따라 결과에 편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곳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안면거상술이란?

노화로 인해 늘어난 볼, 턱 등의 부위에 최소한의 절개를 통해 피부를 박리하고, 노화로 인해 늘어난 SMAS 조직을 팽팽하게 당겨 올려서 주름을 없애고 탄력있는 얼굴을 만드는 수술입니다. 시너지 성형외과의 최소절개 안면거상술은 단순히 늘어진 결피부만 당기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처진 근육층까지 교정하여 당겨주는 이중거상방법이며, 확실하고 반영구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안면거상술 대상

- 얼굴의 깊은 주름을 전반적으로 개선시키고 싶은 경우
- 영구적이고 확실한 리프팅 효과를 원하는 경우
- 노화로 인해 볼과 턱이 많이 처진 경우
- 다른 리프팅 시술로 효과를 얻지 못한 경우
- 잘못된 시술로 이물질을 제거하면서 동안성형을 원하는 경우

◆ 안면거상 수술방법

1. 수술 전 시술 적용부위를 디자인한다.
2. 머리안쪽과 귀앞부분을 최소 절개한다.
3. SMAS 근육층 조직을 분리하고 제거하여 당겨준다.

4. SMAS 층을 고정시킨 후 남은 피부는 절제 후 당겨 봉합한다.

◆ 이마거상술이란?

노화가 진행되면서 얼굴의 윗 부분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노화 증상인 이마주름, 미간주름, 눈가주름 및 눈썹 처짐 등을 이마거상술로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화로 늘어난 GALEA 밀층을 제거하고 이마 전체를 팽팽하게 당겨 올림으로써 이마주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탁월한 리프팅이다.



◆ 왜? 내시경 이마거상술을 해야 하나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와 인대 등의 연부 조직의 지지 구조물이 약해지는데 이런 현상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부위 중 하나가 이마이며 이런 처짐의 영향으로 눈썹과 눈꺼풀이 처지게 된다. 눈꺼풀의 피부가 늘어지게 되면 눈이 더 작아지고 쌍꺼풀이 있던 분들은 보이지 않게 된다. 그로 인해 눈이 작아지게 되면 이마에 힘을 주게 되어 주름이 생기게 된다.

◆ 이마거상술 대상

- 이마 또는 미간 주름이 심한 경우
- 눈꺼풀이 처져서 시야가 좁아지는 경우
- 눈과 눈썹 사이가 좁은 경우
- 인상의 변화를 원하는 경우
- 주름이 깊어 보톡스만으로 개선이 어려운 경우

◆ 이마거상 수술방법

1. 헤어라인을 따라 3~4군데 최소 절개한다.
2. FULL HD 내시경을 사용하여 신경과 혈관을 피해 피하층과 골막 하층을 정확히 박리한다.
3. 처진 이마피부와 근육을 당겨 실로 견고하게 뼈에 고정한다.
4. 고정시킨 후 남은 피부는 제거하고 당겨 봉합한다.



◆ 이마거상술 장점

- 상안면부 노화증상을 한번에 해결하여 시원하고 젊은 인상을 만들어 준다.
- 두피 안 쪽으로 절개를 가하므로 흉터가 전혀 남지 않는다.
- 얼굴 전체에 노화가 있는 경우 안면거상, 목거상, 상안검, 하안검 수술 등과 병행해서 하기도 한다.

◆ 안면거상술 · 이마거상술 전 후 주의사항

수술 4시간 전에는 물, 껌 등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을 금한다. 복용중인 약물은 반드시 미리 알린다. 시술 당일에는 편안한 복장으로 모자, 마스크, 선글라스 등을 준비한다. 귀가시 자가운전보다 대중교통 또는 보호자 동반을 권해한다. 시술 전 3일간 금주, 금연한다. 큰 얼굴표정과 과식은 1개월까지는 주의한다. 수술 후 4주간 금연, 금주이며 비타민 섭취는 콜라겐 재생에 좋다. 수술 후 2~3일은 냉찜질, 3일 이후 온찜질이 회복에 좋다. 1개월간 바른 자세로 상체를 45도 높여자는 것이 붓기 등에 도움이 된다.

고국 방문 의료 상담 및 예약, 의료관광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 전화 617-955-911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카이로프랙틱이란?” : 우리 몸은 남녀노소 모두 31쌍의 척추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뇌로부터 이 신경을 통해 신호를 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충격 즉, 교통사고나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척추가 어긋나게 되면서 척추신경 압박 및 염증으로 뇌로부터의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우리 몸에 통증과 같은 이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척추의 어긋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 가장 안전하게 바로잡는 것이 바로 카이로프랙틱입니다.



원장 : Dr. 이정호, D.C.
(Dr. Jeongho Yoo, D.C.)

- Graduated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Seminar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Methodology Institute
- Certified International Board of Extremity Chiropractors
- 한양대학교 졸업 및 ROTC 47기
- Active license in MA(#3524)

진료과목

- 척추계통 : 목 / 등 / 허리 / 골반 통증,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턱관절 통증
- 신경/순환 계통 : 손발 저림, 좌골신경통, 두통, 알러지, 소화불량
- 교통 사고 전문 치료 및 변호사 상담 :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효과 극대화 및 전문 변호사 연결
- 어린이/학생/성인 자세 관련 통증 및 척추측만 교정



“오직 손으로만 교정하는 정통 카이로 프랙터, Dr. Gonstead Chiropractic을 검색해 보세요”

주요보험: 일반보험PPO, 학교/유학생/여행자 교통사고 보험 등 다수

진료시간 월-목(M-T) : 8am-8pm(야간진료가능) 금,토,일(Fri, Sat, Sun) : Closed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잘 하겠습니다!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 개발 투자 상담 환영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SOLD

1. 퀸지 마리나 베이 고급 1 B/R 콘도 **SOLD**
2.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SOLD**
3.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SOLD**
4.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SOLD**
5. Nail salon in Dedham **SOLD**
6. Brighton 1 Bedroom condominium **SOLD**
7. Dedham Single Family House, 6 Bed/4 bath **SOLD**

LISTINGS



새 바람 Waltham, 6 B/R, 3 Bath Two Family House, 좋은 투자용 주택

ASKING \$765,000



Single Family in Quincy Guest House에 적격 4 B/R, 2 1/2 Bath

ASKING \$589,000
Rent도 가능: 월 \$2,800



Boston The Fenway /Back Bay 1 Bedroom/ 1Bath Condominium

ASKING \$668,000

LISTINGS



Brockton에 있는 30년된 "Meat Market" Lottery, Cigarettes, Grocery
ASKING \$95,000



Drop shop in Newton Location! Location!
ASKING \$49,000



보스턴 남부지역 성황리 영업중 풀 풀랜트 세탁소
ASKING \$160,000



Arlington Single Family House 5 bedroom/ 4 Bath

ASKING \$1,495,000



로드 아일랜드 성업중인 스시 식당 주인 리타이어

ASKING \$280,000



Boston동북부 바닷가 부촌에 위치한 이태리 커피 및 샌드위치 Cafe & Bakery Owner 이주, 좋은 가격

ASKING \$45,000

Direct: Jay B. Lee 781.654.5281
jayblee@newstarrealty.com
19 Needham St. Newton, MA 02461

TEL. 617.467.5218
FAX. 617.467.5273
www.newstarrealty.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건국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건인	617-338-2352
고등교육위원회	800-632-8075
고등교육정보센터	617-727-7785
공중위생국	800-442-1171
구세군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건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메이역	617-34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도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야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운전면허	617-351-4500
웰페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환장(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연합가정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연합가정선교연합회(나)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안전위원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학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주세초대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등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인민회	781-854-8880
세원인민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N연합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민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대화(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80-2999
뉴잉글랜드신학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학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대동문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548-9052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리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인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어일랜드장로교회	401-353-0983
로어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할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동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617-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톤안식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안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3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여류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스프링필드교회협의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엘리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터장로교회	781-354-1843
위스프론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자주촌방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퀸시영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보스톤 정토 법회	617-977-4227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보스톤 한인전주교회	617-558-2711
로어일랜드한인전주교회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정판브랜드스투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미사이딩 청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 개인

골프 개인 PGA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영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Hana Rehab Clinic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타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투영역)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인뱅크	617-799-6158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타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윤상태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장흥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김택은 Realtor	617-678-9330
김현정부동산	617-388-8527
백영주부동산	978-239-0141
송기백부동산	781-510-9924
송현미부동산	617-835-7664
순옥위너부동산	508-737-8366
신현철부동산	617-947-6293
에이블부동산(채혜경)	617-868-2253
오성희부동산	617-275-3109
이경혜부동산	800-867-9000
이정선	617-535-7851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윤부동산(EXT.125)	603-770-3491
정윤숙부동산	617-236-8600
프루덴셜(이효숙)부동산	203-255-2800
프루덴셜(김종미)부동산	603-845-2138

돌상 대여/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스켄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병원(드)내과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한성식내과	978-854-6376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해밀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클리닉로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척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톤컨스테드카이로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완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PROSPay

worldpay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고객 절약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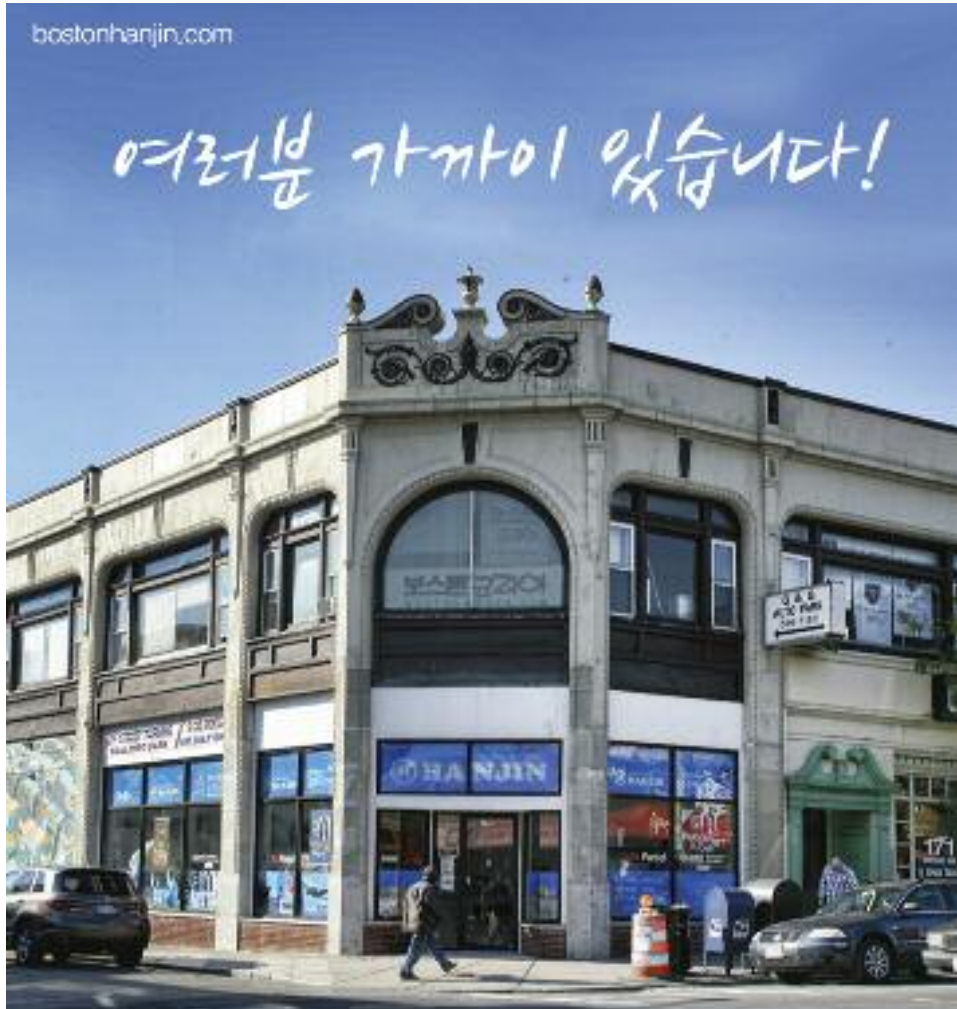
- 본촌: 20% 절약
- 돼지공: 16% 절약
- Mr. Sushi: 19% 절약
- VIP Nails: 22% 절약
- Queens Nails: 24% 절약
- Great Nails: 37% 절약
- My Cleaners: 41% 절약
- Classic Cleaners: 13% 절약
-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Agent/상담원 모집

TEL_617.466.2212 TOLL FREE_888.604.2190

158 Everett Ave. Unit 3 Chelsea, MA 02150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머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s Korean Parish in Canton Church

<반공성사>
12/10일, 17일 미사 전, 중, 후

<대림 4주 미사>
12월 23일(토) 5PM
12월 24일(일) 11:30AM
(10AM, 4:30PM 미사 없음)

<성탄 전야 미사>
12월 24일(일) 8PM

<성탄절 미사와 행사>
12월 25일(월) 3PM 미사
성탄 맞이 본당 구역 설가 잔치
12월 25일(월) 12:15PM

<전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1월1일(월) 11:30AM.

45 Ac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rcb@gmail.com
www.stc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열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톤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과 기쁨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담임 목사 / 우시환

주일예배 / 오후 9:00 | 금요기도회 / 저녁 7:30
유치 / 유치 / 초등 / 중고등부예배 / 청년부모임
Grace Bible Study / 수 7:30 | LIFE 모험 / 주일 4:00

335 Cambridge St. Burlington, MA 01803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HAPPY
해피돌상

고용직 전통상 대여 (세탁, 복싱)
장곡물, 인형, 장난감, 동물장난감, 장난감, 인형, 장난감, 동물장난감, 장난감, 인형, 장난감, 동물장난감

저렴하고 푸짐하게

• 용기를 다하는 화합도 화수화 • 용기를 다하는 화합도 화수화
• 용기를 다하는 화합도 화수화 • 용기를 다하는 화합도 화수화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중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 대학부모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4989 부동산 매매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끄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47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톤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人

誕 (탄)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오늘날(12월 25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탄생(誕生)했으니 곧 그리스도 주(主) 시니라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Christ the Lord. - 누가복음 2:11.

크리스마스(성탄절: 聖誕節)를 지난 28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연쇄 폭탄 테러로 41명이 숨지고 84명이 부상했다는 외신 보도. 외신에 따르면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 국가(IS)가 자신들이 이번 테러의 배후란다.

28일 현재 언론과 주요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카불 서부 6구역에 있는 이슬람교 아시아파 계열의 종교문화 시설인 타바안 사회문화센터에서 적어도 3차례의 연쇄 폭발이 있었다.

아프가니스탄 내무부는 “오늘 공격은 타바안 센터에서 열린 소련의 아프간 침공 38주년 행사를 겨냥했다” 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보건부는 이날 폭발로 지금까지 최소 41명이 죽고 84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부상자 대부분이 화상이 심각해 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 봤다.

사건 발생 직후 IS는 선전매체 아마크통신을 통해 이날 폭발의 배후를 자처하면서 폭탄 조끼를 입은 조직원이 먼저 자폭했고 같은 지역에서 다른 폭탄 3개가 더 터졌다고 주장했다.

27일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북한의 비약적인 미사일 기술발전은 옛 소련의 첨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설계도와 연구진을 대량으로 빼낸 덕분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이 2016년 8월 시험 발사한 SLBM ‘북극성-1’ 역시 마케예프 설계국의 ‘R-27’ 고유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러시아·한국 정보당국에 따르면 소련의 일부 미사일 전문가들이 평양으로 건너가 우주로켓 개발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북한의 군사 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과학연대(UCS)의 미사일 전문가 데이비드 라이트 박사는 “북한은 1990년대 기준으로 최신식 기계들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면서 “그건 지금도 꽤 좋은 기계 도구”란다.

WP는 “미국이 당시 조인트벤처를 빨리 승인하지 않아 소련의 무기 과학자들을 포용하지 못한 것이 결국 북한의 미국 본토(本土) 타격 가능 미사일 개발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1990년대 초 마케예프 설계국과 미국 투자자들의 합자회사 ‘시 론치 인베스터즈(Sea Launch Investors)’의 부사장을 지낸 카일 길먼은 “우리 정부와 군, 정보기관이 근시안(近視眼)적이어서 그 때 평화를 얻어 내어야 했지만 하지 못했다”고

한편 WP는 1990년대 북한으로 간 러시아 미사일 전문가들이 북한으로부터 월 \$1,200(약 128만원)씩 받았는데 이는 러시아에서 벌 수 있는 수입의 약 200배였다.

지난 9월 UN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제 11조 “북한에 혹은 북한에서 공급·판매·이전되는 물품의 선박 대 선박 이송에 참여하거나 이를 촉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조항에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단속치 않으면 실질적으로 ‘공해상 밀수’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

특히 앞으로 북한의 도발로 송유관을 통한 대북한 원유공급이 중단되더라도 해상 밀수가 살아있는 한 북한 제재효과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밀교역이 중국정부의 묵인 아래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단기간 수습차례에 걸쳐 계속 벌어지는 사안이어서 중국이 모를 가능성은 낮다.

해서 미국은 지난 22일 채택된 새로운 안보리 결의 2379호 제9조에 “북한이 선박 대 선박 이송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류를 획득하고 기만적 해상 운송 형태로 석탄이나 다른 금지된 물품을 불법 수출하고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표현을 넣었다.

지난 20일 미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위에 북한 선박 4척과 홍콩, 토고, 파나마 등 외국 선박

6척을 안보리 제재 명단에 등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중국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반대해서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

만약 미국이 독자적으로 해상차단에 나서면 우리 정부에 협조를 요구할 경우 중국을 크게 의식하는 현 정부 정책 노선상 미국과 협조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誕(탄): 誕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生日) 즉 세상에 대어 나신 날이다.

예수님의 생일을 왜 ‘탄일’이라 성경은 기록했을까? 그 경위가 마태복음 11:16-25절에 명백히 기록돼 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以馬內利: Immanuel,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

이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은 구약이사야 7:14절에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Therefore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ign: The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will call him Immanuel.” - 이사야 7:14.

이 이사야(Isaiah)서는 저자 이사야가 기원전 739년~630년에 기록했었다.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誕生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言:언)의 연(延)장”. 이 마리아(Mary)와 하나님 사이에서 “말씀(言: 하나님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인자(人子)로 연(延)장 된 것”을 그린 글자가 탄(誕)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 요한복음 1:1.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言)으로 하늘 나라로 매듭(延)짓는 이유가 誕을 증거하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 마태복음 6:33.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Therefore do not worry about tomorrow, for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Each day has enough trouble of its own.” - 마태복음 6:34.

현재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것뿐이고 “영원한 세상, 즉 우리의 본향(本鄉)사람으로 재탄생(再誕生)” 해야 한다는 것.

해서 “말씀(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永生)의 나라로 건너가는 탄(誕)으로 바꿔 타시는 것”처럼 그를 믿는 신자(信者)들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끝이 아니고 영생(永生)으로 탄일(誕日)이 이어진다는 뜻을 잊지 말아야 예수님의 탄식구(誕食口)로 재생(再生)된다는 진리.

따라서 誕은 말씀(言)이 연(延)으로 늘어나면서 正(정)이 止(지) 위에 획이 숨결(丿)로 표시되면서 영생(永生)의 브레이크(止)였는데 위에 획이 하늘을 향해 丿 열리면서 正이 二(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지(止)가 丿(숨결)로 영생(永生) 즉 주(주님:主)의 숨결(丿:生)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

영원히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예수님의 식구로 영생이 보장됐다는 것.

聖誕을 체험했다면 세상 모든 일이 잠시 통과하는 시련이여지지 집착(執着)이 되어서는 안된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誕을 증거하므로.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TBO PLAY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VIP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99

*전상품 무약정

신년맞이 이벤트

1월까지 한달 무료

KBS MBC SBS

Clean Site KBS MBC SBS SBS Plus tvN XTM OnStyle Mnet O'live OCN

공중파, 케이블, 최신 영화, 뮤직비디오 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송 콘텐츠를 모두 즐기는 The Best On-Demand, TBO
집에서 TV처럼 편하게 IPTV TBO Play,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TBO 내 손 안의 미디어, TBO Touch (출시예정)까지 다양하게 즐기세요.

The Best OnDemand, TBO

故 김주혁 유작 '흥부', 2월 설 개봉 확정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故 김주혁의 유작 '흥부'가 오는 2월 설 개봉을 확정했다.

롯데엔터테인먼트는 3일 "정유, 김주혁, 정진영, 정해인 등 충무로 연기파 배우들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 '흥부'가 오는 2월 설 개봉을 확정 짓고 색다른 스토리를 예고한다"고 밝혔다.

'흥부'는 붓 하나로 조선 팔도를 들썩이게 만든 천재작가 흥부가 남보다 못한 두 형제로부터 영감을 받아 세상을 뒤집을 소설 '흥부전'을 집필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사극 드라마다.

'흥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고전소설 '흥부전'을 새로운 관점과 설정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풍자와 해학, 권선징악의 스토리로 시대를 넘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흥부전'은 아직 작가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

영화 '흥부'는 바로 이 작자 미상의 소설 '흥부전'을 쓴 작가가 '흥부'라는 설정에서 시작하는 영화다. 조선 최고의 천재작가 흥부(정우분)가 전혀 다른 두 형제 조혁(김주혁 분)과 조항리(정진영 분)를 통해 영감을 얻어



탄생시키는 작품이 바로 '흥부전'이라는 것.

그간 스크린에서는 '장화, 홍련' '전우치' '방자전' '마담 뺑뺑' 등 고전소설을 영화로 새롭게 그려낸 작품들이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는 기존에 알고 있던 스토리가 아닌 새로운 관점과 해석으로 영화적 상상력을 극대화했기 때문이다. '흥부' 역시 누구나 알고 있는 '흥부전'이지만 누구도 모르는 '흥부전'의 작가와 그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을 밝힌다는 참신한 스토리로 색다른 재미를 예고한다.

여기에 '흥부'는 조선 후기 사회상을 담은 스토리 안에 허구를 가미해 흥미를 더한다. 어릴 적 흥경래의 난

으로 형과 헤어진 흥부, 과도한 세도 정치로 힘을 잃은 왕 헌종, 그로 인해 날로 피폐해졌던 백성들의 삶 등 역사적 인물과 사실에 가상의 캐릭터들이 결합한 '흥부'는 보다 풍성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선보인다.

조선의 10대 왕 연산군을 내면의 아픔과 고통을 가진 인물로 재해석하고 광대 공길을 극으로 끌어들이 '왕의 남자', 계유정난을 배경으로 얼굴을 통해 앞날을 보는 관상가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낸 '관상' 등과 같은 대표적 팩션 사극 작품들에 이어 2018년 '흥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극 드라마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eujenej@news1.kr



'조선명탐정' 김명민 "김지원과 쌍방 멜로"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배우 김명민이 김지원과의 멜로가 영화 속에 녹아 있다고 말했다.

김명민은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 CGV에서 진행된 영화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이하 '조선명탐정3')의 제작보고회에서 "시즌 1,2,3 통틀어 멜로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서로 멜로의 감정을 주고 받는 게 있다"며 김지원과의 멜로를 언급했다.

이에 오달수는 "둘이서 오늘도 여행 이야기를 같이 하더라"고 질투심을 보

였고, 김명민은 "오달수가 질투를 한 것 같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은 괴마의 출몰과 함께 시작된 연쇄 예고 살인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나선 명탐정 김민과 서필, 기억을 잃은 괴력의 여인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조선명탐정'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으로 전편의 주인공 김명민, 오달수가 다시 한 번 뭉쳤고, 김지원이 새롭게 괴력의 여인 월영으로 합류했다. 오는 2월 개봉한다.

eujenej@news1.kr

2018 무술년 운세

띠별로 보는 2018 무술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넓은 시야를 가져야

무엇이든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샘솟는 때입니다. 하는 일에서 커다란 수확이 기대됩니다. 뜻하지 않았던 곳에서 도움을 받게 되고, 꾸준히 발전합니다. 멀어졌던 사이도 다시 가까워집니다. 나무 보다는 숲을 볼 줄 아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돈이 들어와도 쉽게 나가기도 하니 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극적인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
유리한 달 4월, 8월, 11월. 주의해야 하는 달 3월, 6월, 9월.

소띠 | 시간관리를 철저히

급할수록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일은 반드시 직접 처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발생하거나 계획의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을 잘 돌아보고 시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무리한 욕심을 내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달콤한 말로 접근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
유리한 달 5월, 9월, 12월. 주의해야 하는 달 4월, 7월, 10월.

범띠 |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

에너지가 충만하고 행운이 함께 합니다. 평소 바라는 소원 성취를 하게 됩니다. 핑크 빛 무드가 감동과 결혼의 시기로 최상의 해입니다. 취직이나 열리니 맘껏 실력 발휘를 하게 됩니다. 직장인은 승진하거나 좋은 기회가 생기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입니다. 한 우물을 파면 큰 결실을 얻게 되겠습니다.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
유리한 달 3월, 6월, 10월. 주의해야 하는 달 5월, 8월, 11월.

토끼띠 | 회복되는 기운을 받아

삶을 바꿀 수 있는 좋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파른 언덕을 넘어 평지에 도달하게 되는 운세입니다. 큰 뜻을 이루고 행복한 웃음 속에 지내게 되겠습니다. 힘들었던 일이 해결되고 부진하던 사업도 활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음식이 양지가 되고 새로운 희망도 생깁니다. 큰물은 만난 물고기처럼 활약하고 회복되는 기운을 받아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됩니다.
87, 75, 63, 51, 39년생
유리한 달 2월, 7월, 11월. 주의해야 하는 달 6월, 9월, 12월.

용띠 | 베풀고 배려하는 마음을

먼저 베풀고 배려하는 마음을 내면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화를 주지 말고 하던 일에 온 정성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노력하거나 기대한 것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조급한 마음을 가지거나 초조해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해야 합니다. 씩씩이를 자제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관계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88, 76, 64, 52, 40년생
유리한 달 2월, 8월, 12월. 주의해야 하는 달 7월, 10월, 11월.

뱀띠 | 내적인 것을 견고히 다져야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을 견고히 다져야 합니다. 바쁜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남의 이별의 교차점입니다. 역마가 작용하니 환경의 변화가 많고 이사나 직장의 이동이 있겠습니다. 현 상태에 만족하고 힘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가을로 들어서면 기쁜 일과 바리던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매사에 침착하게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야 합니다.
89, 77, 65, 53, 41년생
유리한 달 6월, 7월, 9월. 주의해야 하는 달 2월, 8월, 11월.

말띠 | 밝은 앞날이 보이고

활력이 넘치니 계도수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밝은 앞날이 보이고 탄탄대로를 달리게 됩니다. 심신이 편안하고 행복해집니다. 이득도 따라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의 위치를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영켜있던 매듭이 풀리게 되므로 애태우던 일이 깨끗이 해결될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았던 재능을 맘껏 발휘하게 됩니다. 활력이 넘치니 환자는 회복이 빨라집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
유리한 달 2월, 7월, 10월. 주의해야 하는 달 3월, 9월, 12월.

양띠 | 조용히 지켜보는 여유가 필요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지켜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건강관리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감정에 치우치거나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성문제가 생기기 쉬우니 특히 새로운 교제는 신중하게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 해결하지 말고 의견을 묻거나 힘을 빌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
유리한 달 3월, 6월, 11월. 주의해야 하는 달 4월, 10월, 12월.

원숭이띠 | 기대 이상의 결과가 따르고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되고 인덕이 따라주니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고 싶었던 것을 시도하기에 최고의 시기입니다. 기대 이상의 결과가 따르고 전망이 좋은 기회도 주어집니다. 자신의 노력한 것에 대한 열매를 수확합니다. 새로운 기획과 아이디어로 성공할 기회가 다가옵니다. 재물과 명예가 한 이름 들어오는 운세입니다. 투자로 이익도 얻게 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
유리한 달 4월, 9월, 12월. 주의해야 하는 달 2월, 3월, 6월.

닭띠 |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밑거름이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밑거름이 되는 일이 있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이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사랑의 표현을 상대방에게 전하면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좋은 만남의 기회가 다가옵니다. 집안에 즐거움과 풍요로움이 가득 차는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힘들어도 건디는 의지력과 인내심만 있으면 다 극복이 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
유리한 달 4월, 5월, 8월. 주의해야 하는 달 3월, 6월, 12월.

개띠 | 상승기류를 타고 있으므로

행복으로 가는 계단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사업이 연결됩니다. 자신의 야망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생깁니다. 상승기류를 타고 있으므로 모든 면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고 소망했던 일도 이루어지겠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모여들고 힘과 지위와 인기를 다시 얻게 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
유리한 달 2월, 3월, 6월. 주의해야 하는 달 4월, 5월, 7월.

돼지띠 | 새로운 길이 열리고

성장하는 기운을 받으니 그동안 뿌려놓았던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행운이 따라주고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니 주위와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절실하게 필요한 때에 금전적인 문제도 해결되겠습니다. 어렵던 문제를 매듭 짓게 됩니다. 중단되고 침체되었던 일에 환한 기운이 맴돕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
유리한 달 3월, 7월, 12월. 주의해야 하는 달 4월, 5월, 8월.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12/1
로렌스 한국식당(이가그릴)에서 카운터 및 웨이트레스 하실 분 구합니다.
T. 781-654-5281

1/5
웨스트보로 한국식당에서 웨이터/웨이트레스 구함. 숙식 제공 가능.
T. 508-366-8898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INVEST NOW!

International Company opening in Korea 2018

Unique Opportunity to invest now!

Contact: enhancedlife1@hotmail.com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골목식당' 백종원, 골목상권 침해 우려에 "新외식문화 창출"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의 취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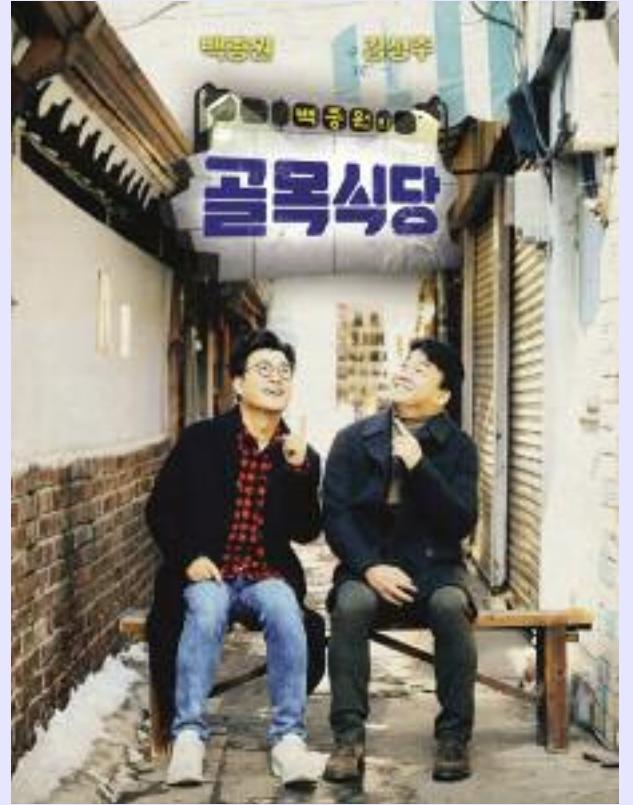
백종원은 3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기자간담회에서 "'3대천왕' 당시 단순한 맛집 소개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외식문화의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하면 좋지, 쏠림 현상이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백종원은 "음식문화가 성공하려면 생산자라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맛집을 소개하고 단순히 요리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다. 소비자 측면 보다 생산자 측면에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기도 했다"며 "처음에는 음

식을 소개하는 쪽으로 가고, 주방에 계신 분들을 음식에서 양지로 모시고 소개하는 과정이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했다. '3대 천왕'을 통해 시청자 분들도 그 과정에 대해 본의 아니게 습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백종원은 프로그램으로 인한 골목상권 침해 우려와 관련한 질문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새로운 문화가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맛집에 줄 서는 것도 하나의 문화가 됐다"면서 "특별한 음식은 아니겠지만 골목에 찾아와서 즐기는 외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먹자골목의 파워풀함도 좋지만 아기자기한 골목에 와서 즐기는 사람이 모여게 되면 먹자골목과 다른 골목의 메리트나 그림이 좋을 것 같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한편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죽어가는 골목을 살리고, 이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과정을 담은 '거리 심폐소생 프로젝트'로 백종원과 김성주, 남창희,

고재근 등이 출연하며 오는 5일 밤 11시 20분 처음 방송된다.

aluemchang@news1.kr

크리샤 츄, 후이 손잡고 오늘 컴백...파워풀+성숙

(서울=뉴스1스타) 황미현 기자 = 가수 크리샤츄의 생애 첫 미니앨범 '드림 오브 파라다이스(Dream Of Paradise)'가 베일을 벗는다.

크리샤츄는 3일 정오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타이틀곡 '라이크 파라다이스(Like Paradise)'를 포함한 첫 번째 미니앨범 '드림 오브 파라다이스(Dream Of Paradise)' 전곡을 공개한다.

타이틀곡 '라이크 파라다이스'는 Soft-EDM 장르로 세련된 사운드와 크리샤츄의 매력적인 목소리가 돋보이는 곡이다.

사랑의 감정을 아직 표현하지 못한 소녀의 마음을 표현한 아련한 가사와 파워풀하면서도 감성적인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완성도를 높였다. Mnet '프로듀스 101 시즌 2'의 경연곡 'NEVER', 워너원의 '에너지틱'을 만든 대세 작곡돌 펜타곤 후이와 프로듀서팀 Flow Blow가 크리샤츄만을 위해 완성한 곡으로, 여성 아티스트와는 첫 협업으로 또 다른 히트곡 탄생을 예감케 한다.

hmh1@news1.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

중앙대학교병원



전문 의료진 75명 / 40여개 의료장비(MRI, MRA, MDCT, PET CT 포함)

- ◎ 전담 간호사 1:1 사전 맞춤 상담
- ◎ 1:1 에스코트 / RFD 전자 태그 시스템
- ◎ 첨단장비를 통한 신뢰성 있는 조기진단
- ◎ 검진센터 내에서 모든 검사 시행
- ◎ 위/대장 내시경 당일 동시검사 시행
- ◎ 진료과목별 전문의 교수의 시술 및 판정
- ◎ 신속한 외래진료 협연 및 응급 의료 시스템
- ◎ 결과 및 영양상담과 과거 검진결과와 비교분석

휴람
3주년기념
특별할인
12월 31일(토)까지

기본검진 프로그램

남성	여성
[50세미만] 55만원 → 49만5천원 신체계측, 체성분분석, 안과검진, 안저, 사력, 청력, 폐기능, 흉부방사선촬영, 초음파, 심전도, 혈액형, 일반혈액, 간기능,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신장기능, 전해질, 당도(공복시혈당, 당화혈색소), 고지혈증, 요산, 간성신기능, 영양표지자간염, 대장암, 직장암, 전립선암, 폐암, 에이즈, 소변, 이빨질환, 기생충, 복부초음파, 흉부시영, 치과진찰(치주질환, 치아우식증, 치아미모증), 석회화검사	[50세미만] 59만원 → 53만1천원 신체계측, 체성분분석, 안과검진, 안저, 사력, 청력, 폐기능, 흉부방사선촬영, 초음파, 심전도, 혈액형, 일반혈액, 간기능, A형간염, B형간염, C형간염, 신장기능, 전해질, 당도(공복시혈당, 당화혈색소), 고지혈증, 요산, 간성신기능, 영양표지자간염, 대장암, 직장암, 난소암, 태반, 에이즈, 소변, 이빨질환, 기생충, 복부초음파, 흉부시영, 치과진찰(치주질환, 치아우식증, 치아미모증), 석회화검사, 영양표지자간염검사, 유방촬영, 여성호르몬
[50세이상] 67만원 → 60만3천원 50세미만 기본검진 + 선역검사 (자선영 흉부 CT 또는 심장초음파)	[50세이상] 69만원 → 62만1천원 50세미만 기본검진 + 골밀도, 자궁초음파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할인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정밀검진 프로그램

남성	여성
신체부위별 정밀검진 1. 소화기정밀 : 50세미만 기본검진 + 대장내시경수술, 복부&골반CT 100만원 → 90만원 2. 심장정밀 : 50세미만 기본검진 + 심장정밀혈액, 심장초음파, 관상동맥CT 100만원 → 90만원 3. 뇌정밀 : 50세미만 기본검진 + 뇌정밀혈액, 뇌 MRI & MRA, 경동맥초음파 150만원 → 135만원	신체부위별 정밀검진 1. 소화기정밀 : 50세미만 기본검진 + 대장내시경수술, 복부&골반CT 110만원 → 99만원 2. 심장정밀 : 50세미만 기본검진 + 심장정밀혈액, 심장초음파, 관상동맥CT 110만원 → 99만원 3. 뇌정밀 : 50세미만 기본검진 + 뇌정밀혈액, 뇌 MRI & MRA, 경동맥초음파 154만원 → 138만원
정밀검진 1. 암정밀 : 50세미만 기본검진 + 저선량 흉부CT, 갑상선 초음파, 골밀도, 심장초음파, 경동맥초음파, 전립선초음파, 남성호르몬, 대장내시경수술, 복부&골반CT, VT-D 200만원 → 180만원 2. 프리미엄정밀 : 암정밀검진 + 뇌·심장정밀혈액, 뇌 MRI & MRA, 폐·심장혈관CT 300만원 → 270만원 50세미만 기본검진 +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심장초음파, 경동맥초음파, 전립선초음파, 남성호르몬, 대장내시경수술, VT-D, 복부&골반CT, 뇌·심장정밀혈액, 뇌 MRI&MRA, 저선량흉부CT, 관상동맥CT	정밀검진 1. 암정밀 : 50세미만 기본검진 + 저선량 흉부CT,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심장초음파, 경동맥초음파, 자궁초음파, 인유두종바이러스 DNA, 유방초음파, 대장내시경수술, 복부&골반CT, VT-D 220만원 → 198만원 2. 프리미엄정밀 : 암정밀검진 + 뇌·심장정밀혈액, 뇌 MRI & MRA, 폐·심장혈관CT 320만원 → 288만원 50세미만 기본검진 +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심장초음파, 경동맥초음파, 유방초음파, 자궁초음파, 인유두종바이러스 DNA, 대장내시경수술, 복부&골반CT, 뇌·심장정밀혈액, 뇌 MRI & MRA, 저선량흉부CT

숙박(다이아몬드)검진 프로그램

남성	여성
480만원 → 432만원 1. 소화기정밀 : 헬리코박테리움혈액, 대장내시경수술, 복부&골반CT 2. 심장정밀 : 심장정밀혈액, 심장초음파, 관상동맥CT 3. 뇌정밀 : 뇌정밀혈액, 뇌 MRI & MRA, 경동맥초음파 4. 폐정밀 : 저선량 흉부 CT / 5. 암정밀 : PET-CT 6. 척추정밀 : 경추MRI, 요추MRI 7. 내분비정밀 :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복부비만CT 8. 남성정밀 : 남성호르몬, 전립선초음파 9. 기타 : 빈혈혈액, 차이X-선촬영	500만원 → 450만원 1. 소화기정밀 : 헬리코박테리움혈액, 대장내시경수술, 복부&골반CT 2. 심장정밀 : 심장정밀혈액, 심장초음파, 관상동맥CT 3. 뇌정밀 : 뇌정밀혈액, 뇌 MRI & MRA, 경동맥초음파 4. 폐정밀 : 저선량 흉부 CT / 5. 암정밀 : PET-CT 6. 척추정밀 : 경추MRI, 요추MRI 7. 내분비정밀 :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복부비만CT 8. 여성정밀 : 인유두종바이러스 DNA, 자궁 초음파, 유방초음파 9. 기타 : 빈혈 혈액, 차이 X-선 촬영

★ 토요일검진 : 매월 2째, 4째주 토요일 /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102 중앙대학교병원 다정관 3층 건강증진센터



HURAM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82-70.4141.4040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s.com / www.huramkorea.com

미국내 상담문의
 보스톤코리아
 Tel. 617-955-9112

“60년 전통의 이태리 명품 매트리스 Magniflex가 매트리스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 잠자면서 자동으로 스트레칭되며 디스크를 생성시켜 목과 허리통증 치료에 탁월합니다.
- 우주복 재질로 만들어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이 있어 전기담요, 전기매트, O 침대 없이도 따뜻하며 전자파에 해가 없어 안전합니다.
- 특수 재질로 어느 부분도 폭 꺼지지 않게 평형을 잡아 움직임이 편안해 쾌적한 잠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 사용 후기

잠자리가 너무 포근한 느낌과 보온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아내가 말하기를 심하게 고을 골던것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고 나면 아주 개운합니다. 제 아내는 깊은 잠을 못잤는데 이제는 숙면을 취해 너무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허리통증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김동원 (Livingstone, NJ)

허리통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전에 보통 매트리스 사용했을때 스테로이드를 5회 맞아도 병원치료를 다녀도 안났던 허리 통증이 매그니플렉스 사용후 통증병원 치료와 병행후 빠르게 통증이 없어져서 멀어게 하나 더 사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더이상 스테로이드를 안맞아도 된다고 합니다.
김시몬 (Closter, NJ)

O침대를 10여년 사용했는데 몇년전부터 목주와 허리에 통증이 심해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는데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를 그 위에 올려놓고 사용후 잠자리가 편하고 목과 허리통증이 사라졌어요. 추우면 전기 스위치를 올리려 했는데 신기하게 전기 스위치를 켜지 않아도 아주 따뜻합니다. 딸에게도 사주었는데 너무 편안하고 포근하다고 좋아 합니다.
김종현 (Palisades Park, NJ)

이전에 스프링 침대를 사용했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났는데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로 바꾸고 허리통증도 사라지고 편안한 자세로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다리에 쥐도 잘 안나고 있습니다.
임 안젤라 (Norwood, NJ)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에 누우면 너무 편하고 베김이 없어요. 전에는 제가 움직이면 옆에 자는 와이프가 신경이 예민해 잠을 자주 잤는데 이제는 옆사람이 움직여도 흔들림이 없어 와이프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어 사용후 피로가 풀리고 아침에 머리까지 개운 하다고 합니다.
Johnny Kim (Rego Park, NY)

O침대의 딱딱함이 싫어 매그니플렉스 제품을 사용하니 누우면 허리 곡선을 부드럽게 바쳐주어 아주 편안하고 깊은 잠이 들어 혈액 순환에도 아주 도움이 되는것 같습니다.
민복선 (Palisades Park, NJ)

전에는 템퍼피드 제품을 사용했는데 누우면 쪽들어가 움직임이 힘들고 답답하고 덥고 했는데 매그니플렉스에 바꾸니 여름에 시원하고 탄력이 너무 좋아 누우면 아주 편해 깊은 잠이 듭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에드워드 홍 (Fort Lee, NJ)



HiTRONS 보스톤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781-862-6867**

HiTRONS 하이트론스

1 Remsen Pl. Ridgefield NJ 07657
201-941-0024
(레지던트 한양울 네)

베델전자 뉴욕지점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445-2005
(코리아 빌리지 1층)

베델전자 한남체인점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1-888-809-1167
(한남체인 몰내)

HiTRONS 필라델피아

1222 Welsh Rd. Suite B2 & B3 North Wales PA 19454
215-368-1070
(아비 몰라지 필라지점)

HiTRONS 메릴랜드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410-465-7125
(롯데 몰라지 마켓 - 엘러콧 시티)

HiTRONS Mattress

470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원빈도넛 매장 옆)
201-941-0010

신영의 **세상 스케치**

627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

무술년(戊戌年) 새해에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회 그리고 내 가정이나 친지와 친구들 가정 모두 안팎으로 두루두루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지난해는 더욱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던가. 2018년 새해는 '황금'을 뜻하는 '무'자와 '개'를 의미하는 '술'자를 합친 무술년으로 '황금 개의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개는 사람과 제일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동물 중 하나이다. 가끔은 집 안에서 '개(강아지)'로 인해 부부간이나 가족 간의 대화가 시작될 때가 있다. 참으로 우스운 얘기인 듯싶으나 사실일 때가 많으니 어찌 웃음으로만 흘려버릴까.

어제 연합뉴스를 통해 '김정은 신년사'에 관한 내용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신년사의 키워드를 생각해 보자.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바로 평창올림픽 대표단, 책상 위의 핵단추, 대화의 노력이다. 먼저 자신의 집무실 책상 위에 핵이 장착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버튼이 있다고 하며 이미 ICBM이 실전배치 됐다는 것을 과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대북 대응에 있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거듭 강조하면서 남북 간 대화가 미북 간의 소통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숨겨뵈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또한, 북한은 '오늘 오후부터 판문점 연락 채널 개통'(서울=연합뉴스) 북한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3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3일 오후 3시 30분(평양시 오후 3시)부터 판문점 연락 채널을 다시 개통하겠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우선 남북 간의 대화 통로가 활성화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것은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남북과 한미와 북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금의 시점에서 대화의 통로보다 더 간절하고 필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비핵화 대화'의 요점일 것이다.

무엇인가 다급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 눈에 보이는 끈나뭇을 잡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던가. 하지만 급하다고 무작정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한 번은 깊은 호흡으로 마주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앞선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마찬가지로 찬가지가 아니던가. 표면으로 나타난 것은 남을 위한 듯싶으나 결국 남을 우선하기보

다는 나 자신을 먼저 챙기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각자의 이해관계에서 서로에게 더 큰 이익이 무엇인가 저울질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니던가 말이다. 지금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이 바로 이런 입장이 아닐까 싶다.

다시 한 번 거듭 들어보지만, 김정은의 신년사 내용의 문구 하나 하나를 쉬이 해석하거나 즉흥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급한 일일수록 돌아가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있지 않은가. 지금에 처한 다급한 마음에 눈앞에 보인 일만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멀리 깊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던가. 지금에 처한 대한민국의 입장이 말이다. 북한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어느 하나도 녹록지 않은 국제정세 속에서의 지혜롭고 이성적인 정치외교의 힘과 노력이 요구되는 때임이 분명하다.

"물론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고 대화가 절실하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정부의 확고한 기본 방침이 필요하다. 대화의 목표가 대화 그 자체여서는 안 된다. 대화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을 이루고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여야 한다. 결국,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확고한 기본 방침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김정은 신년사의 행간을 잘 파악해야 한다. 대화의 장을 만들더라도 핵 동결이나 감축이 아닌 비핵화의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 까닭이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미국에 사는 '대한의 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다. 특별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입장에서는 더욱이 그렇다. 그렇다고 남의 일처럼 방관자가 될 수도 없는 입장이 아니던가. 이번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를 비준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그리고 북한의 3일 '판문점 연락 채널'을 다시 개통한다는 소식은 그 무엇보다도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차근차근 대처하면 좋겠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며.



한담객설閑談客說: 달력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과거를 떼어내고 미래를 단다
후회를 거두어내고 소망을 건다
이별을 버리고 만남을 기대한다
올해도 달려갈
내 삶의 정거장에 동그라미를 친다
...
(뚝뚝글, 달력을 다시 걸며)

그 옛날 새해 달력이다. 잉크냄새가 아직도 가지지 않았을 성 싶기도 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미소 짓는 여배우 사진이 많았다. 이런 달력 사진은 흔했는데, 국회의원 달력도 있었다. 열두달을 달랑 반수장에 채우고, 나머지 반은 중년 사내의 근엄한 사진으로 메웠다. 벽지 대신으로 쓰기에 반갑지 않은 달력이었다. 관찰 다 싶은 달력은 은행에서 만들어 돌렸다. 동양화 사진이 은은했고, 종이질은 고급이었다. 요

새도 은행 달력이 있는가 그건 모른다.
조선시대에는 동지달 즈음이면 사신단을 꾸렸다. 동지사冬至使라 했는데, 중국에 다녀오는 거다. 이때, 중국에서 책력冊曆이란 새해 달력을 얻어왔다. 들여온 중국책력을 그냥 쓴건 아니라 했지만, 별걸 다 얻어왔다. 중국은 별것도 아닌걸 유세떨며 적선하 듯 던져줬다. 지난달, 한국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행여 책력을 얻어온 건 아닐 것이다.
중학교 영어시간이었다. January와 February 스펠링때문에 애를 먹었다. 헛갈렸기 때문이다. 아직도 제대로 쓰기가 그닥 만만치는 않다. 혹시 여기 쓴 영어 철자는 맞나?
새해에는 헛갈리는 일이 없이 모두 평강하기를 소망한다.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사무엘상 25:6)

새해 아침이 밝았다. 올해에도 모두 평안하 시고 복 많이 받으시라. 새해 달력을 벽에 거셨는지?
율리우스력. 시이저가 로마를 통치할 적에 통일한 역법이다. 그 전까지는 일년이 10개월이라 했다. 불편했기 때문에 일월인 January와 이월 February를 삽입해 넣었다. 일년을 12개월로 만든 거다. 새로 넣은 달, January와 February 이름이 재미있다. 일월은 야누스Janus에서 유래했다던가. 앞과 뒤를 연결하는 뜻이며,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문턱이라고 했다. 또한 2

월은 깨끗히 한다는 말에서 February가 되었다. 한편, 7월 July와 8월 August는 각각 율리우스 시저와 아우구스투스 황제이름에서 유래했다.
새해 첫날에 새 달력을 쳐다 볼 적엔 가벼운 흥분감마저 돋는다. 가슴마저 가볍게 설렌다 해야 할게다. 희망일 수도 있다. 낡은 것을 털어냈다는 개운함일 수도 있겠다. 시인이 노래한 달력이다.
정유년을 떼어내고 무술년을 건다



지난 한해동안 보스톤코리아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저희들이 1년동안
달려올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무술년 올 한해에도 모든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 임직원 일동





백성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ownnewengland.com

잘못 오해하고 있는 정보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돈이 관여되면 인간의 의사결정은 더 이상 논리적이 못하다고 한다.

소비자도 전문가도 논리와 실리 사이에서 방황하는 현실에 대해 몇몇 사항들을 짚어 보기로 하자.

오해 1 - 큰 은행들이 용자를 더 잘내준다:
2008년의 금융과동 이후 금융업계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정부는 엄격한 규정을 통해서 주택용자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고, 은행들은 이를 엄수하기 위해서 헉헉 거리고 있다. 이는 마치, 장애물 경주를 연상시킨다. 곳곳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그 사이를 용자은행들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현재의 모습은 덩치 큰 은행들이 너무 더디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눈앞에 장애물을 피하려면 2-3명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에 비해서, 큰 은행들은 10여 명의 보고체계를 통과해서 허락을 받고 겨우 통과한다. 이런 관계로 큰 은행들의 용자승인 및 클로징까지의 시간이 35

일에서 45일까지 소요되고 있다. 이에 반해서 민첩한 중소기업들은 10일-14일만에 클로징을 제공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용자승인 결정이 3일-5일만에 결정되는 중소기업에 비해서, 큰 은행들은 20여 일이 지나도 증서류제공을 요구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신속하고 완벽한 주택용자를 위해서는 큰 은행들을 선호해도, 중소기업에서 동시에 용자승인을 받아두는 현명함이 필요시 되고 있다.

오해 2 - 홈인спек션의 정보는 항상 정확하다: 홈인спек션을 하고나면 항상 아쉬운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바이어들은 홈인спек터가 주택 전반에 전문가이기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인스펙터에 그치기 때문이다. 홈인спек터들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진단을 할 수가 없다.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 컨트랙터를 고용해서 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아닌 사항을 문제점으로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반대로 문제점을 쉽게 간과하는 경우도 목격한다. 안타까운 사실은 부동산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쉽게 관

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성이 결여된 홈인спек션에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혹시라도 쉽게 집을 팔고 사려는 싸구려 부동산꾼으로 오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손님이 직접 질문하기 전에는 어떤 반응도 자제하는 편이다. 그리고 홈인펙터의 선정도 소비자에게 직접 결정을 요청한다.

오해 3 - Dual(양측 동시) 에이전트를 사용하면 더 좋은 가격이 가능하다: MA에서는 한 에이전트가 동시에 바이어와 셀러를 대표할 수 있다. 하지만 2-3개의 서류에 바이어와 셀러 양측으로부터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 서류에는 명확히 “동시 에이전트를 고용할 경우, 에이전트는 손님에게 협상조언을 할 수 없다” 라고 명시 되어있다. 에이전트는 사실적 사항, 규정, 진행사항은 통보해줄 수 있지만, 얼마에 오퍼를 넣는 것이 좋은지, 홈인спек션 후 어떤 것을 고쳐달라고 해야하는지는 말해줄 수 없다. 즉,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변호전략과 대책은 제공 받을 수 없고, 재판서류준비, 재판시간 등 진행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다. 그래도 ‘셀러가 자신의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깎아주겠지’ 라는 기대로 종종 바이어들이 셀러 에이전트에게 동시 진행을 요청한다. 그러나 오랜 부동산 거래를 경험해 보았지만, 끈질긴 바이어 에이전트의 요구없이 셀러가 자신이 원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불신은 무지에서 시작되고, 신뢰는 인지로 확인된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김정은의 신년사를 청독聽讀하고 나서...

2018년 1월 1일, 박선우 (민주평통 자문위원)

2018년 새해 초하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했다. 한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을 것이다. 내용 중 특히 나의 주목을 끄는 부분은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낼 용의와 핵단추가 그의 사무실에 있다면서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IOC수장 등 관계자들이 여러차례 북한의 참가를 독려/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다가 이번에 최고 지도자인 그가 처음으로 참가할 수 있다는 용의를 나타냈다. 그는 “우리는 대화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대표단의 참가문제를 실무단체나 대남기관이 아닌 그가 직접 육성으로 전했다는 것은 좀 생소해 보이는 하지만, 그의 거듭된 ‘진심’ 표현의 비중을 되새겨 보면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를 걸게한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은 절박한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하면서 남북간의 비정상적인 대결관계를 끝내지 않고서는 통일 고사하고 외세가 강요하는 핵전쟁의 참화를 면할 수 없다고도 했다. 남북관계 개선의지 역시 여러차례 반복해서 강조했다. 하지만 대미관계 개선의 언급은 없었다. 과거의 ‘통미봉남’의 정책에서 ‘통남봉미’

로 바뀐 느낌을 준다. 또한 그의 통일지향과 개방, 접촉과 대화, 왕래와 교류 등의 의지도 강하게 표현하였다. 그는 관계개선 용의, 교류와 왕래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한국의 여야는 물론 각계각층의 단체와 개인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교류의 길을 개방하겠다고 하였다. 거부하기 힘든 유화적인 그의 손짓이 평창으로 왔다. 지난해 문재인정부가 제안한 수차례의 대화제안에 거부한 그가 갑자기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새해부터 자신이 한반도의 판세를 주도하겠다는 의도도 있겠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절박해지는 상황을 탈출하려면 한국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평창동계올림픽을 매개체로 이용하는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용의를 환영하고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하여야 한다. 그들의 참가가 평창올림픽을 더욱 안전하고 평화스럽게 치를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하다. 다만 그로 인해 ‘돈 요구’를 하지않길 바란다. 어떠한 요구도 결부시켜서는 안된다. 정치적인 협상은 올림픽 이후에 별도로 하는 것이 정초라고 본다. 올림픽은 순수하게 올림픽정신에 입각하여 아름다운 승부를 펼칠 때 그 소중한 가치를 맞출 수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선수들이 참가하기로 예정된 평창에 북한대표단도 함께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룬다면, 이는 분명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평화의 제전이 아니겠는가!

다음은, 김정은 사무실에 있다는 ‘핵단

추’ 이다. 핵무력 완성에 역사적 대업을 성취했다고 강조한 그는 이제 미국은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단추 하나만 누르면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것처럼 위협했다. 하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과 핵탄두 소형화 등 기술적인 난제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제 남은 일은 그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무기의 대량생산과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가 이처럼 핵공격까지 거론하며 미국을 위협하고 핵무기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하는 것은 당분간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도 있다.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압박과 제재속에서 나온 그의 유화책의 진심은 무엇일까? 미국을 향한 ‘핵단추’ 언급 역시 공격보다 방어용으로 풀이될 수도 있다. 즉 자신은 핵을 완성했기에 핵보유국의 지위로 여유로운 대외정책을 펼치고 강도높은 제재는 대화국면으로 해법을 찾아 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우리가 여기서 직시해야 하는 것은 그의 사무실 책상위에 있다는 ‘핵단추’가 미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현실이다. 그의 예측할 수 없는 의중에 따라 목표지점은 항상 변수가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그의 미국본토 운운에 흘려서 착각을 하거나 미봉에 빠져서는 안된다. 국민 모두가 천장위에 든 구렁이와 함께 사는 것 보다 더 불편하고 두려운 북핵을 머리위

에 이고 살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결국 평창을 매개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관계를 풀어나가는 디딤돌로 삼겠다는 전략인 것 같다. 핵보유국 인정을 제외하면 사실 이 전략은 그간 한국에서 보여온 방향과 크게 상이하지 않기에, 이제 남북대화는 새해 벽두부터 급물살을 탈 것이다. 성공적인 결과도출을 위해서는 한미간의 조율 또한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남북관계 개선에 앞서 김정은은 요구조건이 있다. 이들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 과 ‘미국의 전략자산 반입 중단’ 등이다. 훈련은 조정이나 연기할 수도 있겠지만 전략자산 반입은 북의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중단이 불가능 하지 않겠는가? 일각에서는 한미군열과 남남갈등을 노리는 위장평화 공세라고도 염려할 것이다. 바라건데 한국은 관계 개선 과정에서 ‘한미공조’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부터 균열이 나지 않도록 신중하고도 정교한 접근을 하여야 한다. 사실 무엇보다도 어렵고 복잡한 것이 남북관계이지만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것 또한 남북관계가 아닐까? 김정은이 말한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한 해로 빛내야 합니다”의 ‘민족사의 빛나는 한 해’를 나는 ‘통일의 해’로 희망하고 싶다. 다만 그 통일로 가는 길의 운전석에는 김정은이 아닌 ‘자유민주주의’가 앉아야 되는 자명한 과제가 아니겠는가?

모두가 기다려온 최고의 화제작!

올겨울 미지의 세계가 열린다



대한민국 최고의 웹툰 영화화!
 총제작비 400억원! 총제작기간 6년!
 전세계 103개국 선판매!

신과 함께


죄와 벌


ALONG WITH THE GODS
 THE TWO WORLDS

하정우 | 차태현 | 주지훈 | 김향기 | 이정재 | 도경수 | 김용화 감독
 LOTTE ENTERTAINMENT presents WELL GO USA ENTERTAINMENT distribution

1월 5일 대개봉

AMC Loews Boston Common 19 175 Tremont St, Boston, MA 02111 (617) 423-5801

아메리칸 에어라인 전세계 왕복 항공권 경품 이벤트
 facebook.com/ hitKMovie 에서 <신과 함께> 관람 티켓 인증하고
 American Airlines  항공권 경품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기간 12/22/17-1/15/18]

상영관 정보 및 티켓 예매 | ALONGWITHTHEGODS.COM  facebook.com/HitKMovie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 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mw@mwleecpa.com 또는 mwlee@kicpa.or.kr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3)

- 한국의 근로소득이 어느정도면 미국에 세금을 안내나? \$102,100을 초과하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하나?

(Q) 한국에서 발생한 급여소득이 \$102,100이하면 미국에 세금을 안 낸다고 했는데, 그럼 그 금액을 초과하면 미국에 세금을 낸다는 뜻인지... 미국에 세금을 안 내려면 급여를 \$102,100이하로 받아야 하는건인지?

(A) Earned Income이 \$102,100을 초과한다고 하여 반드시 미국에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거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해외주거비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또는 Deduction))'규정을 통해 일정액의 주거비를 Earned Income에서 공제할 수 있고, 또한 인적공제(Exemption)나 항목별공제(또는 표준공제)를 통해서도 일정액을 공제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도 소득이 남아 미국에서 과세가 된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다시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면 사실 미국에 납부할 세금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주정부세금(State Tax)과 NIIT(Net Investment Income Tax)를 부담하는 경우는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미국에 세금을 안 내려면 한국의 근로소득을 어느정도로 맞추면 되느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된다.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의 개인소득세 계산체계를 한번 살펴보자.

- ① Gross Income : 총소득
- ② Deductions for AGI: 상위공제
- = ③ Adjusted Gross Income : 조정후소득금액

- ④ Itemized Deductions (or Standard Deduction) : 항목별공제/표준공제
- ⑤ Exemptions : 인적공제
- = ⑥ Taxable Income : 과세표준
- X ⑦ Tax Rate : 세율
- = ⑧ Tax : 세금
- ⑨ Tax Credit : 세액공제
- = ⑩ Tax Due (or Refund) : 납부할 세금(환급세금)

위 표를 보면, '⑧세금'은 '⑥과세표준'에 '⑦세율'을 곱하여 계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⑥과세표준에 포함된 소득만 세금이 계산된다는 뜻으로, 바꾸어 말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은 세금을 안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지난 칼럼에서 살펴본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규정은 어떤가? 이는 한국의 Earned Income 중 최대 \$102,100을 Earned Income에서 차감 해 준다는 것으로, \$102,100을 위 '① 총소득'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금액은 당연히 '⑥과세표준'에도 포함되지 않아 그 금액에 대한 세금은 없게 되는 것이다.

해외주거비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Deduction)

그럼 한국에서 발생한 Earned Income이 \$102,100을 넘으면 반드시 미국에 낼 세금이 있다는 말일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미국세법에는 '해외주거비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Deduction)'규정이 있어, 요건을 갖춘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일정액을 Earned Income에서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해외주거비공제 규정도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규정과 마찬가지로, 공제받은 금액 만큼 위 '①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것이다.

인적공제와 항목별공제(또는 표준공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요건을 갖춘 한국거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에서 발생한 Earned Income 중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규정과 해외주거비공제 규정을 초과한 Earned Income과 모든 Unearned Income(이자·배당·임대수입·양도소득 등)이 미국의 과세대상소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다시 위 표를 보자. 표를 보면, '⑥과세표준'은 '① 총소득'에서 다시 각 납세자별로 '⑤인적공제(Exemption)'와 '④항목별공제/표준공제(Itemized Deduction/Standard Deduction)'를 차감하여 계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과세대상소득 중 인적공제와 항목별공제(또는 표준공제)에 해당하는 금액도 미국에 세금을 안 낸다는 의미이다.

Foreign Tax Cred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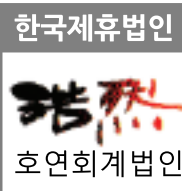
그런데, 설사 해외주거비공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인적공제나 항목별공제/표준공제 등의 규정을 적용하고도 남은 과세대상 소득이 있어, 그 소득에 대해 미국의 세금이 계산됐더라도 반드시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위 표를 보자. 우리가 실제로 납부할 세금 즉, '⑩납부할 세금(환급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된 '⑧세금'에서 '⑨각종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됨을 알 수 있다. 즉, 계산된세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나 기타 법에서 정한 세액공제액을 빼고 나머지만 내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국의 세금이 계산되더라도, 그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이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미국에 낼 세금은 없거나 있더라도 생각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Earned Income규모를 해외주거비공제 규정과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등의 수준으로 맞추려는 노력은 큰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tomwlee1125@gmail.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신년맞이 이벤트

1월까지 한달 무료



WiFi 내장
Compact size
Settop Box \$55

*전상품 무약정

Plus 상품
방송 3사

\$14⁹⁹

Premium 상품
방송 3사
자상파 / 케이블

\$24⁹⁹

VIP 상품
방송 3사 / 종편
자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⁹⁹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55-9112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419)

은퇴와 한 해를 마감하며

미국에 이민 온 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노후대책으로 마련한 자금이 충분한지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은퇴자금을 투자하며 여러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국내의 정치, 이자율, 경제 전망, 생활비, 한동안 오르는 주식시장, 북한 미사일 등 걱정거리가 끊임없습니다.

은퇴한 사람의 가장 큰 걱정은 '살아있는 동안 생활비가 꾸준히 나올 것인가?' 입니다. 평균 수명은 점점 더 길어지고 의료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0여년간 매일 10,000명의 은퇴자가 쏟아져 나오는데 은퇴자들의 공통된 걱정은 하늘나라로 갈 때까지 생활비입니다.

최근 한 대학에서 '노년을 상대로 한 여러 위험' 이라는 연구논문(Risks in Advanced Age, Michael A. Guillemette, Texas Tech University, Journal of Financial Planning, March 13, 2017)이 발표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연구 결과 가장 큰 화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투자 결정하는데 판단(Cognitive Ability)이 점점 흐려진다는 결론입니다. 젊었을 때 알고 있던 재정 지식은 나이 먹을수록 잃어버리고 새로운 재정지식을 접해서 이해한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객관적인 안목 역시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좁아지고 확실하다고 믿는 곳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된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고 내림에 따라 은퇴한 투자자의 마음 역시 근심과 불안으로 오르고 내립니다. 장기투자하면 결국 주식시장은 올라간다는 이성적인 판단은 점점 멀어지고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CD나 단기 채권 그리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불가상승으로 시간이 갈수록 자산가치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평균수명이 점점 길어지는 상황에 붙어가지 않는 은퇴자금은 살아있는 동안 바닥이 날 수 있습니다. (How investors underestimate how long They'll live in retirement, Gus Sauter, WSJ, Feb. 12, 2017). 이런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

인지 함께 알아봅니다.

*간단한 재정관리:

주식시장과 재정관리는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퇴 재정관리는 세금, 자산분배, 분산투자, 수익률, 생활비, 의료경비, 투자 위험성, 상속 등 항목별로 이해해야 하며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투자 목적(Investment Policy)과 방법(Process)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금융계좌를 하나로 형성하는 것도 재정관리를 간단하게 하는 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 재정관리 검토:

어느 가정이나 일반적으로 돈에 대한 이야기는 멀리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현재 재정 상태와 관리를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분들은 남자가 재정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남은 배우자는 당황하고 모든 것이 두려워집니다. 홀로 남았을 때 정서적인 불안

과 잘못된 재정관리로 남은 인생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의논해서 성장한 아이들과 부모의 재정 상태를 의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재정설계사 고용:

자산 투자와 관리를 믿을 수 있는 재정설계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는 재정설계사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서 투자 관리(Fiduciary)합니다. 믿을 수 있는 재정설계사란 매년 수익률을 문서로 발표하고,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 경비도 항목별로 구분해서 문서로 보여주고, 투자가 어떻게 되어있으며 왜 그러한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투자는 물론 세금, 상속 등 돈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제삼자의 객관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 입니다. 잘못된 투자로 마음에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면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제대로 하는 재정관리로 남은 삶은 즐겁고 재미있게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희망해 봅니다.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년이 시작되면서 바뀌는 이민관련 법규들과 개정이 예상되는 법규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독자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빕니다.

2017년은 이민법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을 만큼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시작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Buy America Hire American' 정책 기치로 이민법과 시행령을 마구마구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임기 2년 째가 되는 올해 2018년에도 새해 첫주부터 많은 개정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개정내용들과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들에 대한 요약입니다.

1. Trump Fall 2017 Regulatory Priorities

작년 12월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이 행정부가 중점을 둘 정책과 변화들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입니다.

- 국무부가 담당하고 있는 비이민비자 수수료에 대한 인상: 외국에 상주하고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비이민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의 수수료의 인상에 대한 리뷰와 보고서가 현재 검토 중입니다. 늦어도 올 상반기에는 수수료의 인상이 예상됩니다.

- J 비자에 부과된 거주국가 2년 거주 조항 면제: 거주국가 2년 거주 조항을 면제 받는 방법 중 가장 무리없이 받는 방법은 해당국 정부의 거주 조항 면제에 대한 반대 없음 (No Objection) 이었고, 이러한 No Objection 있으면 대부분 국무부에서 이 2년 거주 조항을 면제해 줍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해당국가의 반대가 없더라도 국무부에서 자체적으로 면제 신청서를 다시 검토하고 독립적으로 면제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제 신청서 작성에 더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 국무부와 마찬가지로 이민국 (USCIS) 도 대부분의 신청서에 대한 신청료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영주권 신청에서 Public Charge (복지제도 수혜) 가 심사에 크게 작용됩니다. 영주권 신청 전 몇가지 복지제도를 수혜했거나 수혜의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들의 영주권 신청서는 각각됩니다. 영주권 신청 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1B 신청인 (Employer) 은 이민국이 정한 온라인상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삼년 이상 쿼터보다 훨씬 많이 신청되는 신청서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추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 H-1B 자격요건이 보다 강화됩니다. 특히 수혜자의 직위가 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하는지와 신청자와 수혜자간 고용인 (Employer) 피고용인 (Employee) 관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됩니다.

2. 급행신청서 변경

현행 급행 신청에 쓰이는 Form I-907 이 1월 31일로 만료되며 2월부터는 새로운 신청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급행신청은 Form I-129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서) 와 Form I-140 (취업 영주권 신청서) 에 가능하며 올해부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3. 강화된 OPT 검열

몇 년 전부터 OPT 승인 후 90일 안에 직장을 잡아야 하는 법률에 대한 엄밀한 시행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OPT 와 CPT 의 기간에 대한 엄밀한 잣대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학생비자 신분에서 H-1B 로 변경하는 신청자

들에 대해 이들의 OPT 기간을 문제삼아 신청서를 기각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12개월 이상의 OPT 기간을 쓴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행법은 한 학위당이 아닌 학사, 석사, 박사 레벨 당 12개월의 OPT 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사를 한번 한 사람이나 두번 이상 한 사람이나 다 12개월의 OPT 만 허용됩니다. 또한 CPT 와 OPT 를 합해서 12개월 이상인 자도 불법으로 간주할 움직임이 보이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4. H-1B

여러 매체들이 작년말부터 H-1B 에 대한 대대적 개정과 부정적인 소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분명 변화가 있고,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한국인 신청자들에게는 오히려 호재일 수 있습니다. 작년의 예를봐도 총 40만 여개의 신청서 중 약 30만개가 인도 국적자 (75%) 였고 4만여개가 중국 국적자 (10%) 였습니다. 두 나라 국적자가 전체의 85%를 차지 했습니다. 아무리 두 나라 국적자들이 컴퓨터 관련 또는 기술 관련 직장에 많이 종사한다고는 하지만 두 나라 국적자가 한 비자 신청이 85%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정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편견일 수 있겠지만 이 두 나라 국적자들의 H-1B 편법 신청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 때문에 진짜 자격을 가진 수많은 신청자들이 신청서의 심사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합법적인 방법으로 신청하는 한국인 신청자들에게 올해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미리 개정된 사항들에 맞게 잘 준비하시기 당부 드립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불체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미국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우리 아이가 꿈을 꿀 수 있는 나라에서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남의 땅이라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힘들어 하는 일, 나서서 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일터로 향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아이들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불체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SONGLAWFIRM

201.461.0031 | mail@songlawfirm.com

SONGLAWFIRM.COM

YouTube Song Law Firm

HQ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NY 1745 Broadway, 17th Floor, New York City, NY 10019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GEORG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YORK | NEW JERSEY | PENNSYLVANIA | KOREA | CHINA

SONGLAWFIRM



뉴저지 본사 소속 시니어 변호사

songlawfirm.com

고객이 신뢰하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

기업 고객 국제법 | 금융법 | 노동 및 고용법 | 보험회사 관련 소송 | 부동산 | 상법 및 M&A | 소송 | 이민법 | 임대업, 임차인 관계법 | 지적 재산법 | 프랜차이즈법

개인 고객 가정법 | 노동 및 고용법 | 부동산 | 사고 손해 | 상법 | 세금, 상속, 유언 | 소송 | 이민법 | 임대업, 임차인 관계법 | 지적 재산권 | 티켓, 지역 법원 관련 업무 | 파산 | 형법

HQ |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 T 201.461.0031 | F 201.461.0032 | mail@songlawfirm.com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YORK | NEW JERSEY | PENNSYLVANIA | KOREA | CHINA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융자 알선: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음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공적인 세일과 서비스로 근 30년간의 기나긴 세월동안
고객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풍부한 리소스와 서비스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성공적으로
부동산 투자,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고, 운영하시는 고객 한분 한분이
되시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고객님 가정에 화평, 희망과 번영이 가득한
2018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경해 드림



보스톤 교육원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미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아카데미 프로그램

1. SAT1,2/ AP 수업 특강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단기 고득점 완성
실전 문제 풀이 중심
상시 참여와 주말 수업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2. 학과목 개인 수업 지도

영어, 수학,역사,과학,외국어
경제,심리, 기타 과목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겨울방학 단기 집중 프로그램

기간: 12/23(토)~12/30(토):7일
(크리스마스 당일 휴강)

1. SAT1/ SSAT class

실력있는 강사진
각 영역별 문제 유형 분석
실전 연습 문제 풀이
단기 Test Prep 확립

2. SATII Subject Test

Math II, Chemistry, Biology, Physics

3. AP 전과목 및 학과목 선행 학습 지도

2018년 College Process 모집

대상: 현 11학년(Junior)
모집 기간: 2018년 2월 까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컨설팅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명확한 업무 처리

각종 경시대회 준비

수학 경시 대회
(AMC/AIME)

외국어 경시 대회
(Latin, Spanish, French)

과학 올림피아드 준비
(Biology, Chemistry, Physics)